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

팬데믹 환경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한 은 지

팬데믹 환경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Examining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in the Pandemic
Situation

2022년 8월 2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한 은 지

팬데믹 환경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경 자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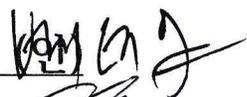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한 은 지

한은지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영남대학교	교수	배태일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차희정	
위원	조선대학교	강사	이은하	
위원	조선대학교	연구교수	박현규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자	

202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목차	i
표 목차	v
ABSTRACT	vii
헌정	x
감사의 글	xi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4
1.3 연구 문제	5
2. 이론적 배경	6
2.1 외국어 학습전략	6
2.1.1 외국어 학습 전략의 정의와 중요성	6
2.1.2 외국어 학습 전략의 분류	8
2.1.2.1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 분류	8
2.1.2.2 Oxford(1990)의 학습 전략 분류	9

2.2 자기효능감	11
2.2.1 자기효능감의 정의와 중요성	11
2.2.2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13
2.2.3 자기효능감의 형성과정	14
2.3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16
2.3.1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전략	16
2.3.2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	17
2.4 외국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	18
2.5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19
2.5.1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19
2.5.2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21
3. 연구 방법	24
3.1 연구 대상	24
3.2 연구 도구	27
3.2.1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27
3.2.2 영어 성취도 측정	28
3.3 자료 수집 방법	29

3.4 자료 분석 방법	29
4. 연구 결과 및 논의	31
4.1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31
4.1.1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33
4.1.2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36
4.1.3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38
4.1.4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40
4.1.5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42
4.1.6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43
4.1.7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44
4.2 팬데믹 영어 학습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자기효능감	46
4.2.1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47
4.2.2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	50
4.2.3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	53
4.2.4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55
4.3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	57
4.3.1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	57

4.3.2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의 변화	59
4.4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	61
4.5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63
4.5.1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64
4.5.2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67
4.6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	71
4.6.1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	71
4.6.2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 요인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	72
5. 결론 및 제언	75
5.1 연구 요약	75
5.2 교육적 함의	77
5.3 연구의 제한점	79
5.4 후속 연구 제언	80
참고문헌	81
부록	98

표 목차

표 1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 분류	9
표 2 Oxford(1990)의 학습 전략 분류	10
표 3 평균 영어 공부 시간	24
표 4 영어 학습 방법	25
표 5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25
표 6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이유	26
표 7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28
표 8 영어 학습 전략 요인별 신뢰도 계수	32
표 9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34
표 10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37
표 11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39
표 12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41
표 13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42
표 14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44
표 15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45
표 16 자기효능감 요인별 신뢰도 계수	46
표 17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48

표 18	영어의 4-기능별 과제 효능감	51
표 19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	54
표 20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56
표 21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	57
표 22	팬데믹으로 인한 자기효능감의 변화	59
표 23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61
표 24	연구 참여자의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63
표 25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65
표 26	상위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 사용의 차이	66
표 27	영어 성취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68
표 28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회귀분석	72
표 29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회귀분석	73

ABSTRACT

Examining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in the Pandemic Situation

Han, Eun Ji

Advisor: Kim, Kyung Ja, Ph.D.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tudies on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have found that there are two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of learners. These are essential factors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pandemic, the learning environment of students has also begun to change. The online curriculum has been provided, and classes are conducted online. Research on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is crucial because it helps students adapt to the classroom environment in this situation and helps them use various learning strategies. Likewise, there is self-efficacy, a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Self-efficacy sensitively affects the learners within the learning situation. Thus the importance of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should be continuously considered in resear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in an English learning of the pandemic situation.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at experience changes and those that do not experience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It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Finally,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by classifying the students into the lowest, intermediate and upper groups according to their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nd whether these factors affect such achievement.

110 sophomores that attend J High school in Gwangju participat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o examine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the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ng a survey questionnaire including the background information. The questionnaire on learning strategies was classified into 7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Previous results indicated that the following 7 factors were the most prominent; 1) metacognitive strategy; 2) how to learn English in an online environment; 3) memory strategy; 4) compensatory strategy; 5) social strategy; 6) affective strategy; 7) cognitive strategy. The questionnaire on self-efficacy wa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literature as: 1) confidence; 2) task efficacy; 3) self-regulation efficacy; 4) negative perception of the online environment. In additio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and without changing in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before the pandemic, and the reasons were analyzed.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coefficient, independent sample *t*-test, correlati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quantitative dat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students mainly used the metacognitive strategy and strategy in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little used social and cognitive strategies.

To understand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evaluat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showed high self-efficacy in terms of confidence, but lacked confidence when attempting to learn new skills in an online environment. In addition, the study's participants preferred to perform speaking and reading tasks. Their self-efficacy in speaking and reading was found to be high, yet their writing self-efficacy was low. In the question related to online English classes, most of the students felt comfortable with the onlin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third research question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relation between the group that experiences a change in English learning strategy and self-efficacy and group that did not when considering the pandemic. However, groups that did not experience change used various learning strategies.

Among the factors of self-efficac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negative perception of online classes.

The results of the fourth research question indica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the self-efficacy of learn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efficacy and cognitive strateg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onfidence and cognitive strategy was also high. In particular, the factors of self-efficacy, confidence, task efficacy and English learning strateg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he next research question indicated, that the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was divided into the lowest, intermediate and upper group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English learning strategies of the three groups in the English learning of the pandemic situation, the average of the intermediate group was the highest except for the memory strategy. Strategi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the metacognitive and compensatory strategies. These strategies were shown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mediate and upper groups.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between the three groups, the mean of the intermediate group was found to be the highest. The factor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excluded the self-regulation efficacy, but the mean of the upper group was the highest in the self-regulation efficacy category. However, when looking at each group separately, one of the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earch results thus showed that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in this study.

Teaching learners an appropriate learning method in an English learning of pandemic environment is essential. The pandemic has been going on for about three years, and we are preparing for an endemic. Stil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guide learning types and strategies to promote autonomy without losing confidence.

헌정

제 박사 학위 논문을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께 바칩니다.

감사의 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하던 학업에 대한 열망을 채우기 위해 박사 과정을 시작한 후부터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글이지만 대학원 과정 동안 제 곁에서 저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난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경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연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심사해주신 배태일 교수님, 차희정 교수님, 이은하 교수님, 박현규 교수님께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박사 과정을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야깁없이 지원해주겠다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없이 배려해주셔서 지금의 결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다른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졸업을 앞두고 졸업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그 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참 마음에 남는다. 한창 자격증 준비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부담도 많이 되고 힘들겠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내 친구 지수와 하영이 그리고 다솜이에게 이 시기를 너희들 덕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수와 하영이도 이번 년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두 친구가 저에게 주었던 응원과 격려 제가 이제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늘 걱정어린 말들과 시선으로 또 때로는 말도 안되는 장난으로 웃게 해준 내 친구들의 앞날에도 제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솜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

지 않아 많이 바빴을텐데 그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늘 함께 있어줘서 너무나 든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깨달음과 영감을 주신 안대표님! 그리고 저에게 모든 부분에서 밸런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신 우리 하선생님. 제가 추진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행복을 주신만큼 두 분의 앞날에도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미래를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한은지 올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영어 학습에 있어서 교육의 방향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 중에서도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y)은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변인들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김배성, 2022; 박찬규, 2021; 양숙녀, 2020; 이해원, 2006). 외국어 학습전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Oxford(1990)에 따르면 학습전략이란 학습자가 외국어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행동 또는 기술이며, 학습을 쉽고 재미있고, 자기 주도적이며, 새로운 상황으로 잘 전이되도록 하는 학습자의 행동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다양한 학자들의 외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에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게 가르침으로써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hamot, 1987; O'Malley & Chamot, 1990; Oxford, 1990).

한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19(COVID-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 환경 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채로 맞이한 코로나 19의 발병과 그 확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져왔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코로나 19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다. 이 신조어는 코로나 19에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BLUE'가 합성된 단어로 불안, 우울 증세를 의미한다(정성식, 2020).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청소년들이 두려운 감정과 우울감,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고 심리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크다고 발표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교육과정이 새롭게 제공되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방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규, 2021; 송송이, 2021). 온라인 영어 학습은 학생 수준에 알맞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쌍방향 소통이 힘들어 수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들을 교육부에서 적절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김혜리, 2020; 정지윤; 2021).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수자로서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학습 환경이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습자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Schorle & Szabo, 2000), 학습 환경에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은진, 2013).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며, 이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정미선, 2007; Corno & Mandinach, 1983; Pintrich & De Groot, 1990). Oxford(1990)는 상급의 언어 학습자들은 자기 평가(self-evaluating), 자기 감시(self-monitoring)와 같은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을 사용하여 자신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을 통하여 감정과 태도를 조절하며,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을 이용하여 타인과 질문을 주고받는 등 학습 전략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 설정한 학습 전략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 환경에서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Mayer, 1988). 학습 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영어 성적이 높을수록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은호윤, 2018; 조영아와 최훈, 2012). 또한, 언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 전략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 전략과 영어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학습 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학업성취를 이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언어 학습과정에서 학습 전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미래와 서천수, 2007; 위혜정과 조정순, 2010; Dreyer & Oxford, 1996).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비대면 도구인 줌(Zoom),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Teams), 구글 미츠 (Google Meets)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업 방식과 도구에 익숙하지 못한 학

습자들이 많아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교수자와의 소통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이 남아있는 현실이다(강영돈, 2021). 팬데믹의 영향은 교육 분야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이경하와 차지영, 2020; 이보경, 2020; 임애련, 2021).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 방식과 전략을 찾아 실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상된 학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조은원, 2021).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이 영어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아지고 있다(김보민, 2016; 송지영, 2017). 학습에 대한 동기나 태도 및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같은 요인들이 정의적 요인에 포함되며, 이러한 정의적 요인은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Brown, 2007; Oxford & Ehrman, 1995). 여러 가지 정의적 요인 중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들 수 있다(김희수, 2004; 송승민과 이유현, 2012; 유미영과 홍혜영, 2010; 주영주, 정영란과 이유경, 2011).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믿음으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 수행에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주어진 학습에 쉽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Bandura, 1997). 학업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 과제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학습 활동에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자기효능감이라는 요인은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김아영과 차정은, 2003; 김청자와 김현규, 2010; 신종호와 신태섭, 2006; 유지현과 이숙정, 2012).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적인 특성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을 직면하여 수업 환경이 새롭게 변화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이성아, 2021). 온라인 수업 과정의 특성상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자신의 학습 방향을 정해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특히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Puzziferro, 2008). 따라서 학습자들이 팬데믹 상황의 영어 수업 환경에서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살펴본다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학습 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학습 전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지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성적과 연관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읽기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김보민, 2016)가 존재하지만, 이는 영어 읽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범위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학습자의 영어 듣기, 쓰기, 어휘, 문법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그들의 영어 학습에서의 전략과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학년, 성별에 따라 하위집단별로 학업 성취, 학습 동기, 학습 전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복권, 2017; 진경애, 신택수, 김성경과 최영인, 2016; 이성혜와 채유정, 2016)들도 많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환경에서 어떤 영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요인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지 학습의 결과물인 영어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하위, 중위, 상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어

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이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안한다.

첫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셋째,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요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섯째,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하위·중위·상위)에 따라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여섯째,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요인은 고등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외국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정의와 중요성, 외국어 학습 전략의 분류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및 형성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외국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른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2.1 외국어 학습 전략

2.1.1 외국어 학습 전략의 정의와 중요성

성공적인 언어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학습 전략은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였던 1970년대 중반에 Rubin(1975)과 Stern(1975)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Oxford(1990), O'Malley와 Chamot(1990) 등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Rubin(1975)은 학습자가 똑같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학습활동 결과에서는 개인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외국어 학습에 성공적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을 조사 및 연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들을 연구해 본 결과, 학습 전략 사용과 외국어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성공적인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자신이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떤 전략이 적절하고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Green & Oxford, 1995). Stern(1975)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관찰 가능한 행위를 학습 전략이라고 정의하였고, Wenden과 Rubin(1987)은 외국어 학습 전략을 특정 언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얻어서 저장한 후,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과정 중에 학습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 유형은 인지적 정보처리 관점에서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정보를 더 효과

적으로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 사고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Oxford(1990)는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하고 회상하는 것과 비슷한 언어 학습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활동이 학습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이러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면서 학습을 좀 더 쉽고, 빠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학습에 잘 전이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 전략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외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학습 전략이란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행하는 체계적이고, 의식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사고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외국어 습득모델에서 학습자의 학습 전략 선택은 학습자의 신념, 정의적 상태, 학습 경험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언어 환경, 수업형태, 학습 과제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것은 언어습득의 속도와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Ellis, 1994). 또한, 학습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인지구조에 연관시키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더욱 발달된 스키마를 형성하도록 돕고(Nyikos & Oxford, 1993), 학습 전략은 태도, 적성, 인성, 동기 등 학습자의 특성과는 다르게 쉽게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O'Malley & Chamot, 1990). Gardner와 Macintyre(1993)는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서 높은 성취 수준과 관련있다고 밝혔고, TOEFL 점수와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SILL)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73$) 언어 능숙도와 전략 사용빈도 간에 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Dreyer & Oxford, 1996). 학습 전략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학습자 요인과 학습결과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과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의 영어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팬데믹이 발현되고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정대연과 배지영, 2021; 주하민과 배지영, 2021)이나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 진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모든 학생들의 대면 교육의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의 직접적인 통제, 개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의 학습 전략 연구에서보다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상운, 2021).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만족을 위해 학습 전략을 위한 이론적 탐색은 영어 교육 현장에 실용적인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2.1.2 외국어 학습 전략의 분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O'Malley와 Chamot(1990)과 Oxford(1990)가 제시한 분류법이다. O'Malley와 Chamot(1990)은 학습 전략을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그리고 사회·정의적 전략(Socio-affective strategies)으로 분류하였으며, Oxford(1990)는 직접 전략(Direct strategies)과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ies)으로 구분하였다.

Oxford(1990)는 O'Malley와 Chamot(1990)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된 분류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가 개발한 외국어 학습 전략 검사(SILL)는 학습 전략에 관해 상세한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Oxford(1990)의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분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왔고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Oxford(1990)에 의해 개발된 학습 전략 분류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이경량, 2010; 이해원, 2006; 황명환, 최현규, 신수정과 이희경, 2016).

2.1.2.1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 분류

O'Malley와 Chamot(1990)은 언어 학습 전략을 크게 상위인지 전략, 인지 전략, 사회·정의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학습을 계획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전략으로 외국어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학습자가 학습

도중에 자신의 발화와 이해에 관해 관찰하고, 학습 후 자신의 학습 성공을 평가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이다. 인지 전략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직접 사용하는 전략이다. 즉, 학습 내용과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에 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전략이다. 이는 학습 자료나 과제를 직접 조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정의적 전략은 학습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학습을 돕기 위해 질문하거나 협력하기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분류는 인지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상위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정의적 전략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표 1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 분류

상위인지 전략	학습 과정에 관한 사고, 학습 계획, 학습 과제에 대한 감시 및 학습의 진전을 평가하는 등의 전략
인지 전략	학습 내용과의 상호작용,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인 취급, 학습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전략
사회·정의적 전략	학습과제의 완수를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

2.1.2.2 Oxford(1990)의 학습 전략 분류

Oxford(1990)는 학습 전략을 언어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접 전략과 간접적으로 언어학습을 지원해주는 관리해주는 간접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직접 전략은 기억·인지·보상 전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억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며, 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직접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전략이다. 보상 전략은 학습자가 외국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추측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족함을 극복하여 이해하고자 시도해보면서 생기는 전략이다.

간접 전략은 상위인지·정의적·사회적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위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준비 및 계획하고 스스로의 학습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정의적 전략은 학습에 있어서 자신의 불안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전략은 학습자가 타인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또래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보는 전략, 학습을 협력해서 수행해보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있다.

표 2
Oxford(1990)의 학습 전략 분류

직접 전략	기억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전략
	인지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직접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보상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
간접 전략	상위인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준비, 계획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전략
	정의적	학습과 관련해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부여, 태도 등을 통제하는 전략
	사회적	대화 상태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이용하는 전략

2.2 자기효능감

2.2.1 자기효능감의 정의와 중요성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다(Bandura, 1977). 즉,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본인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확신을 가리키고, 이는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박헌일, 2000; 임규연, 2011).

한편,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 존재한다.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아존중(self-esteem) 등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준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이 용어들의 개념에는 차이가 존재한다(Bong & Skaalvik, 2003). 자아개념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아개념에 의해 자기 참조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태도와 그런 태도가 삶의 일반적인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최경숙, 2000). 하지만 자아개념의 이론들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지는 못하며 전반적인 자기상에 대한 관심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영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행동 영역에서도 그 난이도의 수준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영역에 따라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결합한다고 하여도 자아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박영옥, 1999). 효능감이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osenberg, 1978). 학습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진행할 때 자기효능감은 그들이 정한 목표와 이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목표와 수행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이미정, 2004).

본 연구에서는 영어 과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을 영어 관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영어에 노출된 특정 환경

에서 영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강정화, 2010). 영어 학습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교과에 대한 흥미와 학습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및 학습 능력을 증진시켜주며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김담실과 이성원, 2019). 뿐만 아니라 성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읽기 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 학습 전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가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은호윤, 2018). 또한, 대학생들의 영어 어휘 및 독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어휘와 독해 전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박세리, 2017),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영문 속독 연습을 훈련시키고 사전, 사후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효능감의 변화를 지켜본 연구에서 속독 연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학생들은 영어를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영어 발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효능감이 상승했다는 것을 밝혔다(김병선, 2019).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성적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해왔기 때문에 영어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이라는 맥락 안에서 동기나 인지적인 요인들과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이 수행하는 능력과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수월하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지각된 효능감을 통해 과제를 지속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있다(지혜영, 2011).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진학과 진로 선택과 관련이 있고, 학업성취와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강효숙, 2013). 그러므로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껏 해왔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자기효능감에 대해 다양한 주제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으나 팬데믹이 발현된 후 영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의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2.2.2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자기효능감은 크게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ed efficacy), 자신감(confidence), 과제난이도 선호(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습자의 자기 관찰과 판단, 반성, 반응 등에 대한 자기 조절 기제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 기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자기 조절 체계는 인간행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비교하여 수행력을 판단한다. 만약 자신의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새로운 목표를 쉽게 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인다(김아영, 2007; 송성순, 2013). 그러므로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관찰과 자기 판단이라는 인지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과정을 통하여 표출되며(정홍전, 2018), 자기조절을 스스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개인의 효능기대가 학업성취와 학업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하위요인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86, 1989).

자신감은 학습자가 특정 과제에 대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보이는 확신이나 신념으로 정의한다(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학습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김보민, 2016; 김아영과 박인영, 2001; 송성순, 2013). 나이가 어린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Wang & Pape, 2007), 수업 시간에 또래나 교사로부터 처벌이나 비난을 받게 된다면, 어린 학습자일수록 학업 성취에 대한 자신의 기대 수준을 쉽게 낮춘다(Oettingen, 1995).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생산성 목표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목표, 과제전략과 함께 목표선택에 대한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 또한 자신감은 사고, 감정, 동기부여 그리고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행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있다(Bandura, 1986). 과제를 수행하게 될 때 정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인지된 자기효능감에 따라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의심되거나 과제 수행에 있어 불안감, 초

조함이 느껴질 때는 과제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게 된다(김아영, 1998; 김재근, 2005; Latham & Locke, 1991). 정리하자면, 과제난이도 선호는 스스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라 할 수 있다.

2.2.3 자기효능감의 형성과정

Bandura(1986)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mastery experience), 간접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그리고 정서적 각성(affective states)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성공 경험은 네 가지 요인 중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근원이 되며 이를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하고 많은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닐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지속적으로 실패의 경험을 해왔던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상황 맥락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학습자에게 과제가 쉽다고 느껴지거나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제에 쉽게 성공한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공 경험은 자기효능감 개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때 실패를 거듭하며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될 때 자기효능감은 향상된다(Bandura, 199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가끔 실패하는 경험이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김정희, 2006).

둘째, 타인의 과업 수행을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간접 경험이 있다. 즉, 모델링을 통해 추론 과정에 의하여 자신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chunk, 1995; Schunk & Hanson, 1985). 특히 간접 경험은 과거에 해당 과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모델로 정한 타인과 본인의 유사성이 클수록 효과가 있지만(Bandura, 1997), 간접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을 통해 얻은 것보단 약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언어적 설득은 타인이 학습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네 가지 요인들 중 가장 효과가 약하지만, 특별한 기제 없이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설득하는 사람이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영향력이 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Bandura, 1997). 그러나 설득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인지하면서 얻어지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보이는 긴장을 포함한 정서적인 상태를 뜻한다(Bandura, 1986).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목소리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나 땀을 흘리는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들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예시들이다. 반대로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에 머무르는 학습자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2.3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2.3.1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전략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하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실시된 블렌디드 학습으로 인해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유민선, 202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 동기가 팬데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교육부,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 정책연구소(2021)에서 교육격차에 관해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학교 382개교를 조사하여 분석할 결과 팬데믹 이전에도 교육격차는 존재했지만, 이후에 학업성취도가 더욱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차이가 학습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Ehrman & Oxford, 1989; Larsen-freeman & Long, 1991; Oxford & Nyikos, 1989; Skehan, 1991) 팬데믹으로 인해 수업 환경이 변화하여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말하기 학습 전략 양상을 살펴본 결과 보상 전략, 정의적 전략, 인지 전략, 상위인지 전략, 기억 전략 그리고 사회적 전략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주월량, 2021). 충북 소재의 4년제 사립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 전략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면 환경에서의 학습 전략이 비대면 환경의 학습 전략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권영애와 오방실, 2022). 온라인 성인 학습자의 영어 수업 상황 속에서 학습 전략을 분석한 결과 학습 전략 사용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학습 전략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오프라인 학습 상황에서 보다 낮고 이로 인해 학습 전략 사용도 적은 비율을 보여준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권경임, 2009). 팬데믹 발생 전에 온라인 영어 수업에서의 학습 전략을 조사한 연구도 있지만 팬데믹 발생 후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은 에듀테크(EduTech)의 발전 및 미래 교육 전환의 일환으로 대면 수업과 함께 하나의 수업 형태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임수현과

김성연, 2022)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전략 분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2.3.2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

효과적인 온라인 교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협력적인 문제 해결, 적절한 피드백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와 같은 원칙이 존재한다(Hacker & Niederhauser, 2000). 또한 웹 기반 교육(Web-based instruction)에서 학생의 동기부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자기효능감은 학업 효능감, 인터넷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Joo, Bong & Choi, 2000). 과거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 방식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초등학교 학년별로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 수업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사전, 사후로 분석한 결과 원격화상 원어민 영어 수업을 하고 나서 자기효능감이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 연구(오영범과 이창두, 2012)도 존재한다.

팬데믹 발생 후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할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대면 수업에서 보다 낮은 만족도와 효능감을 보여준 연구(오동주와 황홍섭, 2020)와 반대로 팬데믹 상황의 학습 환경에서 ‘창의와 소통’이라는 교양과목을 듣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사후 평가에서 효능감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긍정적인 결과(유경애, 2020)를 보여준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습자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학습자로 집단을 구분하여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의 수업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조윤경, 2021) 이 연구의 학습자들은 비대면 상황을 비교적 잘 수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코로나 19 상황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의 연구들이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 것처럼 향후 온라인 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서 학습자가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거나 학습에 더 효과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외국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

학습 전략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계획이며 학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여 성취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신념 자체가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이경아, 2004).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인지, 상위인지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오랫동안 끈기를 보이며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인지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켜 높은 수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전략과 영어 자기효능감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인문계는 영어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전략들을 골고루 사용했지만 실업계는 상위인지 전략이 영어 자기효능감과 가장 큰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이혜원, 2006). 이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인과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성양과 조규판, 2018; 이지혜와 하정윤, 2016).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2년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영어 학습 상황 속에서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올바른 학습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향후 학습자의 영어 학습과 교수자의 알맞은 학습지도안을 준비하는데 의의가 있다.

2.5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2.5.1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적절한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한다(Dickinson, 1987). 따라서 영어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학습전략이 영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전략 사용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언어능력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학생들보다 학습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O'Malley & Chamot, 1990; Politzer, 1983; Vandergrift, 2002; Yu & Wang, 2009), 학습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한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국내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조영아와 최훈, 20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과 영어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영어 학습 전략은 영어 학습의 성취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와 김영수, 2006). 즉, 영어 학습 전략은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에 비해 보다 활발히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영어 학습 전략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슷한 결과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양숙녀, 2020; 위혜정과 조정순, 2010; 이수진, 2012; 이효웅, 2002; 정세원, 2011).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여러 환경의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과 영어수행능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였다(박지순과 나경희, 2016; 신의정과 이용남, 2004; 이경국, 2008; Dreyer & Oxford, 1996). 이처럼 학습 전략은 학습자의 영어 성취 수준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혜원, 200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업성취도와 학습 전략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에서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였고,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사회적 전략에서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위혜정과 조정순,

2010).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특정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공적인 학습자는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자보다 상위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권혁일과 박순희, 2011; 김미래와 서천수, 2007; 정혜진, 2006; Dreyer & Oxford, 1996). 마찬가지로 상위인지 전략과 관련된 학습 전략은 영어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준열과 정충대, 201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영어 학습신념과 학습 전략,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을 배제한 상황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른 집단별 영어 학습 전략을 분석한 결과, 영어 학습 전략의 모든 항목과 학업성취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위 집단은 기억 전략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전략의 사용빈도를 보였다. 중위 집단 또한 보상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하위 집단보다 높은 학습 전략의 사용빈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김원과 심창용, 2014), 하위 집단보다 상위·중위 집단에서 다양한 전략 사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 흥미도, 학습 전략 사용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에서는 상위 집단은 보상 전략, 정의적 전략, 상위인지와 사회적 전략, 기억 전략 순으로 사용 정도가 높았으나 하위 집단에서는 사회적 전략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전략 사용 차이를 볼 수 있었다(박찬규, 2021). 즉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가 있었으며,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보다 많은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학습 전략 사용이 높으면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여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면대면 학습의 결합 및 다양한 교수법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새로운 교육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Graham, 2006). 블렌디드 러닝 특성상 학습자의 자발성과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대면 수업 방식에서보다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블렌디드 러닝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유형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습 전략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습 전략이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윤, 2021), 이는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팬데믹 이전에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중 하나의 상황에서 진행한 연구들이 많다. 또한, 대체로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습 전략의 영향이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학습 전략을 보여주고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학생들의 학습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비대면 수업 방식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지만 팬데믹 상황은 규모와 방법에서 기존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권선희와 류현숙, 2021). 비대면 수업이 안정화를 이루고 있지만 학습자의 많은 과제나 상호작용 부족과 같은 불편함은 여전히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남겨져 있다(도재우, 2020).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김지윤, 2020; 이시철, 김선영과 박상훈, 2020; 홍성연과 유연재, 2020), 이 환경에서 영어 학업성취도와 학습 전략을 함께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준별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모의 토익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비대면 수업이 지속 되면서 영어역량이 향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김성해와 홍서경, 2021). 또한, 수도권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이후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성취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김범주, 2021). 정송, 안영은(2021)의 연구에서도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팬데믹 이후 학력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교육부, 2021). 이렇듯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2.5.2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Ham(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습 목표 설정과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영향을 주면서 영어 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결과도 저조하였고,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저조한 학업성취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하락하게 되는 순환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효능감이 외국어 학습 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학업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이 어떤 과제에 임할 때 자신이 어느 정도 그 과제 수행에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주관적 판단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나동진, 신미경과 조인근, 2008; 이수진, 2012; 이현숙, 신진아와 김경희, 2013; Pajares, 1996).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토익 성적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어 학습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토익성적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삼, 2011).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자기효능감, 과제의 가치, 성취목표, 학업노력 및 인지 전략과 영어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영어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는 학업노력과 인지 전략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었지만 영어 학업성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영어 자기효능감과 인지 전략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이수진, 2012).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종단적인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은 영어 성취도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김태한, 2012). 중학교 1,2학년 시기의 영어 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차기 년도 영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후속연구를 통해 초기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이후 4년간의 영어 학업성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유정, 2017).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를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어 학업성취도에서의 영향력 수치가 비혁신학교 학생들보다 높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영어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었다(김유정, 박리리와 이지연; 2020). 마지막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학년 진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낮게 예측되었다. 초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초기의 학업성취수준이 중요함을 시사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송지은,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팬데믹 이전의 상황에서 영어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최근 팬데믹 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 수업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매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강 만족도, 지각된 학업 성취도에서 실제 학업 성취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아, 2021).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이 학업 성취의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은 영어 학습과 성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팬데믹 이전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자기효능감과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그 차이를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학습 전략과 영어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두 요인에서 변화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어 학업성취도 검사를 통해 하위, 중위, 상위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J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여 총 110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기본 정보에 대한 문항은 성별, 영어 학습 시간, 영어 학습 방법, 영어 학업성취도 점수 및 팬데믹 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영어 공부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약 1시간(40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30분 이내(26명)에도 상당 수의 학생들이 선택하였고, 하지 않음(20명)에 응답한 학생들도 전체의 18.2%에 해당하였다.

표 3

평균 영어 공부 시간

30분 이내	약 1시간	약 2시간	약 3시간	3시간 이상	하지 않음
26*	40	19	3	2	20
(23.6%)	(36.4%)	(17.3%)	(2.7%)	(1.8%)	(18.2%)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학생들의 영어 공부 방식에 대한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EBS 방송이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였으며(39명), 이는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다보니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30명)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학생들은 영어 사교육을 수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표 4
영어 학습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음	학교 수업에 집중	온라인 학습(EBS)	영어 과외	영어 학원
29	26	39	5	30
(22.5%)	(20.2%)	(30.2%)	(3.9%)	(23.3%)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의 영어 학습 방법과 영어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묻는 문항의 결과는 표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0명 중 43명에 해당하였고,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51명의 학생이 ‘차이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 5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변화함	변화하지 않음
영어 학습 전략	43명	67명
자기효능감	51명	59명

표 6은 표 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팬데믹 전과 다르게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작성한 내용을 파악한 결과이다. 영어 학습 전략이 변화한 이유는 학원을 그만두게 된 학생이(24명) 많았고, 팬데믹 전보다 학습량이 감소하였다(11명), 집에서 공부하게 되었다(5명), 인터넷 강의를 통한 학습 비중이 상승하였다(2명),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 방법이 변화하였다(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영어 학원을 관두고 학교 수업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보니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학습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이유

		이유	응답자 수(명)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		학원을 그만둠	24
		학습량 감소(복습X, 노트정리X)	11
		학습 장소가 집으로 한정	5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비중이 높아짐	2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변화함	1
	자기효능감의 변화		코로나 이후로 다들 공부에 소홀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김
		혼자 학습을 해야 하므로 전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자신감이 생김	11
		전보다 영어 성적이 하락하여 부담감이 큼	10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됨	8
		공부 방법을 알지 못해 자신감 하락	3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팬데믹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들(30명)이 있었는데 이 중 19명의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로 다른 친구들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하였고, 혼자 학습을 해야 하므로 전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는 학생들도 있었다(11명). 반면, 2학년 1학기 영어 학업성취도 성적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여 영어 공부에 부담감이 생긴다는 이유(10명)도 있었으며, 팬데믹 이후로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고(8명), 영어 학습 방식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있었다(3명).

3.2 연구 도구

3.2.1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팬데믹 상황의 수업 환경에서 영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어 학습 전략과 관련된 문항은 Oxford(1990)가 개발한 SILL을 번역하여 기초로 하고 기존의 선행연구(김해동, 2003; 이상윤, 2021; 이옥주, 1998; 정세원, 2011)의 설문지를 번역하여 수정하고 비교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이성아(2021), 정택희(1987), Sherer et al.(1982), Wang, Kim, Bong & Ahn(2013)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7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영어 학습 전략	기억 전략	5
	인지 전략	5
	보상 전략	4
	상위인지 전략	6
	정의적 전략	5
	사회적 전략	4
	온라인 학습전략	7
자기효능감	자신감	6
	과제 난이도 선호	8
	자기조절 효능감	7
	온라인 자기효능감	5
총 문항 수		62

영어 학습 전략은 기억, 인지, 보상, 상위인지, 정의적, 사회적 그리고 온라인 학습 전략 총 7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과 온라인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참조).

3.2.2 영어 성취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영어 성취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연구 시점이 12월이었으므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설문지에 직접 자신의 영어 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고 110명의 학생 모두 자신의 영어 성적을 성실하게 적어주었다.

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2021년 12월 27일~ 2022년 1월 4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가졌다.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연구 및 설문에 대한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 시간은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기본 사항 및 영어 학업성취도 점수와 자신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총 111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110명이 응답하였으므로 설문지 회수율은 99.9%였다. 설문지 회수율이 낮을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대하는 연구 결과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회수율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설문 내용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6을 사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수와 백분율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였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대한 설문 문항에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팬데믹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분석하였다.

4)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및 자기효능감 수준에 변화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5)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6)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수준별(하위·중위·상위)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사후 t -검정(post hoc t -test)을 실시하였다.

7)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을 독립변수로, 영어 성취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장에서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가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본 후 논의한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과를 보여주고 논의하고자 한다.

4.1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표 8은 영어 학습 전략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요인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인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의 신뢰도 계수가 .913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요인 5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의 신뢰도 계수가 .463으로 가장 낮았다. 요인 5의 신뢰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삭제하려 했으나, 문항 분석 후 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문항은 세 개이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응답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안전 수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신뢰도 계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 요인을 분석 결과에서 제거하지 않고 포함하였다.

표 8

영어 학습 전략 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인명	문항 수	Cronbach's alpha	M
요인 1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10	.913	2.87
요인 2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6	.813	2.95
요인 3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5	.777	2.82
요인 4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4	.826	3.19
요인 5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3	.463	2.54
요인 6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5	.609	2.92
요인 7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3	.677	2.92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로 설정하였고, 요인회전은 요인 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변수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식으로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그 후 요인 분석에서 공통성(Communalities)의 결과를 통해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공통성이 높은 것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40 미만일 경우 변수 간 선형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문항을 제외시키거나 수정해야 한다(Osborne, Costello & Kellow, 2008).

요인 분석 결과 문항 20번(영어를 학습할 때의 나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문항 22번(나는 영어를 공부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긴장하거나 초조해지는 감정을 느낀다), 문항 25번(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암기하기 위해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본다), 그리고 문항 28번(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하루도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였다)의 공통성이 .4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제외하고 요인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으며 총

32개의 문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그리고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으로 총 7가지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1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표 9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인지 전략과 관련된 내용의 문항들이다. 문항 34번(학교 영어 수업을 자주 복습해본다), 문항 26번(영어를 공부할 때, 수업시간에 쓴 노트를 검토하고 중요한 개념들의 개요를 만든다), 문항 14번(온라인 영어 수업에 필요한 공부시간을 스스로 잘 활용한다), 문항 8번(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어 학습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은 선행연구(이혜원, 2006; 정세원, 2011)에서 다른 전략에 포함되었으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들을 살펴보면 영어 공부를 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과 관련있기 때문에 이를 상위인지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문항 14번은 온라인 환경의 학습 전략에 대한 문항이지만 수업에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 잘 활용하는 것과 관련있다. 이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상관없이 본인의 시간 활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표 9의 요인명을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명명한다.

표 9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문항		1*	2	3	4	5	<i>M</i>	<i>SD</i>
34. 학교 영어 수업을 자주 복습해본다. (.764)	변화O**	7	14	14	6	2	2.58	1.07
	변화X	12	20	17	12	6	2.70	1.21
	전체	19	34	31	18	8	2.65	1.16
26. 영어를 공부할 때, 수업시간에 쓴 노트를 검토하고 중요한 개념들의 개요를 만든다. (.757)	변화O	10	14	11	7	1	2.41	1.09
	변화X	13	22	10	15	7	2.71	1.30
	전체	23	36	21	22	8	2.60	1.22
12.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학습활동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한다. (.752)	변화O	5	9	17	9	3	2.90	1.08
	변화X	10	13	21	13	10	3.00	1.26
	전체	15	22	38	22	13	2.96	1.19
33.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739)	변화O	7	12	18	4	2	2.58	1.02
	변화X	10	21	15	14	7	2.80	1.23
	전체	17	33	33	18	9	2.71	1.15
15. 나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721)	변화O	3	4	18	16	2	3.23	.94
	변화X	6	9	18	22	12	3.37	1.19
	전체	9	13	36	38	14	3.31	1.09
14. 온라인 영어 수업에 필요한 공부시간을 스스로 잘 활용한다. (.711)	변화O	8	18	13	4	0	2.30	.88
	변화X	10	20	20	12	5	2.73	1.19
	전체	18	38	33	16	5	2.56	1.07
27. 나는 가능한 한 영어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658)	변화O	7	12	13	9	2	2.69	1.12
	변화X	13	19	19	11	5	2.64	1.18
	전체	20	31	32	20	7	2.66	1.15
30. 나의 영어 능력(영어 성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642)	변화O	4	3	13	20	3	3.34	1.04
	변화X	6	12	19	18	12	3.26	1.21
	전체	10	15	32	38	15	3.30	1.14

36. 영어 수업 시작 전 수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 (.632)	변화O	7	12	16	6	2	2.62	1.06
	변화X	11	18	18	11	9	2.83	1.27
	전체	18	30	34	17	11	2.75	1.19
8.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부터 영어 학습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572)	변화O	4	3	13	20	3	3.34	1.04
	변화X	8	15	15	20	9	3.10	1.24
	전체	12	18	28	40	12	3.20	1.17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변화O: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변화X: 변화 없는 집단

요인 부하값(factor loading)은 .764~.572 사이의 값을 보여주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결과와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전략이 변화한 학생과 변화하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학습 전략 중 표 9의 요인 문항 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하는 상위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선행연구(김성연과 김원기, 2005; 윤혜민과 이진화, 2014)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여섯 가지 학습 전략 유형 중 상위인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정용희, 2021)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어떤 학습자든지 자신의 영어 학습을 평가해보고 스스로 계획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연습을 더 강화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 15번(나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M=3.31$)과 문항 30번(나는 나의 영어 능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M=3.30$)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어 성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성적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수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영어 공부를 복습하는 문항 34번(학교 영어 수업을 자주 복습해본다, $M=2.65$), 문항 26번(영어를 공부할 때, 수업시간에 쓴 노트를 검토하고 중요한 개념들의 개요를 만든다, $M=2.60$)의 전략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순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영어 수업 복습에 관해 '그렇지 않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복습과 관련된 학습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응답자의 기본 사항을 묻는 설문 문항 중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의 영어 학습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n=11$) 중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이 끝난 후에 따로 복습을 하거나 노트정리를 하는 횟수가 줄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전략 사용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문항 8번(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어 학습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영어를 학습할 때 사교육을 통해 영어 학습에 도움을 받았다. 사교육을 오래 경험한 영어 학습자일수록 전략사용률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임윤경, 2018)처럼 사교육을 수강하여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이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황명환 외 3인, 2016) 스스로에게 적합한 영어 학습 전략을 찾고 수업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항 33번(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한다)에서 팬데믹 발생 전과 다르게 학습 전략에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의 응답 비율이($M=2.58$)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M=2.80$)보다 더 낮았으므로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반대로 문항 27번(나는 가능한 한 영어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에서는 변화한 학생들의 평균($M=2.69$)이 더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n=19$)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변화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1.2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표 10은 온라인 영어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이라고 명명한다. 요인 부하값은 .881~.542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표 10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문항		1	2	3	4	5	<i>M</i>	<i>SD</i>
23.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 (.881)	변화O	6	15	11	10	1	2.65	1.06
	변화X	10	22	13	17	5	2.77	1.20
	전체	16	37	24	27	6	2.72	1.14
17. 나는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주어진 숙제를 제시시간에 하도록 노력한다. (.772)	변화O	7	10	12	12	2	2.81	1.15
	변화X	10	12	19	17	9	3.04	1.26
	전체	17	22	31	29	11	2.95	1.22
24. 온라인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한다. (.661)	변화O	10	13	11	9	0	2.44	1.07
	변화X	11	23	17	14	2	2.59	1.08
	전체	21	36	28	23	2	2.53	1.08
7.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한다. (.616)	변화O	7	17	10	9	0	2.48	1.00
	변화X	17	21	12	11	6	2.52	1.28
	전체	24	38	22	20	6	2.50	1.17
4.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542)	변화O	1	8	12	17	5	3.39	1.00
	변화X	4	13	20	19	11	3.29	1.14
	전체	5	21	32	36	16	3.33	1.08

문항 17번(나는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주어진 숙제를 제시시간에 하도록 노력한다)을 보면 평균($M=2.95$)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어 수업 전 숙제를 제시시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학습 전략을 조사했을 때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 관리 학습 전략을 충실히 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유하원, 2021).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오프라인 수업보다 힘들고(김강희, 2020)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직접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 기반 수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고(Cho, 2021), 수업 평가에 속하는 과제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전 과제 수행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항 7번(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수업시간에 선생님

께 질문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영어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n=38$)이 더 많았으며, 문항 24번(온라인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래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다($n=36$)’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 간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보경, 2020; 정향기, 2020; 조혜선, 2020; 최윤정과 지난영 2020)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학습 전략 사용이 줄어든다는 결과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최미양, 2021).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 변화에 응답한 결과, 학습 장소가 집으로 한정($n=5$)되었으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n=2$)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보아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가 없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지만, 문항 4번(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을 요약하여 정리한다)에서는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평균($M=3.39$)이 더 높아 다른 전략 사용과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이 영어 학습 시 중요한 개념을 요약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기 활동을 진행하여 영어 학습자들의 읽기 영역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요약활동을 통해 읽기 부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김태희, 2017).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중요 내용을 요약하여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4.1.3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표 11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거나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미 아는 것과 영어로 배운 것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문항 1번(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 그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문항 21번(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하려고 애쓴다), 문항 10번(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행동으로 옮겨 보면서 단어를 암기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3을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이라고 명명한다. 선행연구에서는(박지윤, 2019; 이해원, 2006) 문항 31번(나는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제스처로 표현한다)이 보상 전략으로 구분되었지만 요인 분석 결과 기억 전략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문항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항 31번도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스처를 통해 재생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이는 기억 전략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문항		1	2	3	4	5	<i>M</i>	<i>SD</i>
1. 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 그 단어가 사용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800)	변화O	3	12	18	7	3	2.88	1.00
	변화X	6	23	16	13	9	2.94	1.20
	전체	9	35	34	20	12	2.91	1.12
21. 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하려고 애쓴다. (.587)	변화O	3	16	10	12	2	2.86	1.05
	변화X	5	20	20	16	6	2.97	1.10
	전체	8	36	30	28	8	2.92	1.08
31. 나는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제스처로 표현한다. (.561)	변화O	3	7	8	16	9	3.48	1.20
	변화X	8	11	14	21	13	3.29	1.29
	전체	11	18	22	37	22	3.37	1.25
10. 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나타나는 뜻을 행동(몸짓, 손짓 등)으로 옮겨 보면서 단어를 암기한다. (.493)	변화O	11	15	9	6	2	2.37	1.15
	변화X	14	26	9	12	6	2.55	1.25
	전체	25	41	18	18	8	2.48	1.21

평균($M=3.37$)이 가장 높은 문항 31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은 기억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인문계와 실업계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을 조사하였는데 기억 전략의 사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이혜원, 2006).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학습 전략 중 기억 전략을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연구(정세원, 2011)도 존재한다. 성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의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억 전략을 가장 적게 활용했다는 것으로

보아(권경임, 2009)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억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문항 31번(나는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제스처로 표현한다)에서는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M=3.48$) 나머지 문항들과는 다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4.1.4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략으로 문항 11번(나는 처음 본 영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추측해본다), 문항 3번(나는 적절한 영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뜻이 동일한 다른 단어나 문장을 대신 사용한다)의 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보상 전략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이라고 명명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전략별로 구분했을 때 문항 19번(영어로 말할 때 실수 하는 것이 겁이 나더라도 영어로 말해보려고 스스로를 격려한다)과 문항 16번(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연상 관계를 생각해본다)은 다른 전략에 속해 있었지만 요인 분석을 실시하니 표 12의 요인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르는 단어를 추측해보는 것이 보상 전략의 예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항 16번은 연상 관계를 생각하여 학습해보는 학습자의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극복하고 영어로 말해보고자 노력한다는 문항 19번 또한 영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방식에 해당되므로 보상 전략에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상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항 3번(나는 적절한 영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뜻이 동일한 다른 단어나 문장을 대신 사용한다)의 평균($M=3.27$)이 가장 높았는데 외국어 고등학생과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전략 사용 비교 연구를 진행했을 때 두 학교 유형 모두에서 보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정세원, 2011).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습자들 중 상위 집단이 보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런 특정 전략들이 영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박찬규, 2021; 위혜정과 조정순, 2010) 전략 사용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한다. 즉, 영어 학습 전략 중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상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2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문항		1	2	3	4	5	<i>M</i>	<i>SD</i>
11. 나는 처음 본 영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추측해 본다. (.697)	변화O	3	8	14	13	5	3.20	1.10
	변화X	6	12	18	22	9	3.23	1.16
	전체	9	20	32	35	14	3.22	1.13
19. 영어로 말할 때 실수 하는 것이 겁이 나더라도 영어로 말해보려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675)	변화O	4	10	15	10	4	3.00	1.11
	변화X	4	18	17	21	7	3.13	1.11
	전체	8	28	32	31	11	3.08	1.10
16. 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연상 관계를 생각해본다. (.594)	변화O	3	7	14	16	3	3.20	1.03
	변화X	5	19	14	20	9	3.13	1.19
	전체	8	26	28	36	12	3.16	1.12
3. 나는 적절한 영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뜻이 동일한 다른 단어나 문장을 대신 사용한다. (.589)	변화O	1	10	14	13	5	3.25	1.02
	변화X	4	17	14	20	12	3.28	1.20
	전체	5	27	28	33	17	3.27	1.13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에서 변화가 있다는 집단이 문항 16번(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연상 관계를 생각해본다)에서 변화가 없다는 집단보다($M=3.13$) 더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M=3.20$). 즉, 변화가 있는 집단이 연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업 환경이 변화하다보니 새로운 내용도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함께 연관지어 학습해보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게 된 것이라 추측된다. 교수가 어휘를 지도할 때 연관성을 찾아내어 연상 전략을 활용하여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이 어휘를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조윤희, 2014) 영어 학습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4.1.5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표 13은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대화 상대를 찾아보는 것(29번 나는 영어로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35번 나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 6번 나는 다른 학생들과 영어를 사용해보면서 연습한다.)에 관한 3가지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이라고 정하였다. 요인 부하값은 .771~.578의 값이다.

표 13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문항		1	2	3	4	5	<i>M</i>	<i>SD</i>
29. 나는 영어로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771)	변화O	2	9	12	12	8	3.34	1.15
	변화X	5	14	19	18	11	3.23	1.18
	전체	7	23	31	30	19	3.28	1.16
35. 나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 (.680)	변화O	15	14	8	4	2	2.16	1.15
	변화X	23	28	7	6	3	2.07	1.10
	전체	38	42	15	10	5	2.10	1.11
6. 나는 다른 학생들과 영어를 사용해보면서 연습한다. (.578)	변화O	13	16	11	3	0	2.09	.92
	변화X	20	20	17	9	1	2.26	1.08
	전체	33	36	28	12	1	2.20	1.02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문항 29번(나는 영어로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의 평균($M=3.28$)이 가장 높았고 이는 정세원(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문항 35번(나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 $n=42$)과 문항 6번(나는 다른 학생들과 영어를 사용해보면서 연습한다, $n=36$)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급 EFL 학습자의 사회적 전략과 문법 학습 전략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전략이 학습 수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김갑현, 2021)와 다르게 분석되었다. 반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전략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들은 학생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용희, 2021). 이는 성인 학습자들은 사회생활이 고등학생들보다 친숙하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생이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어렵다는 점과 대화 기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전략에서는 다른 전략들과 다르게 영어 학습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이 문항 29번($M=3.34$)과 문항 35번($M=2.16$)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있는 집단이 사회적 전략을 더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습전략 중 사회적 전략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박찬규, 2021)에서처럼 모든 학습자들이 사회적 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4.1.6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영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부여, 태도 등을 통제하는 정의적 전략(13번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울 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려 노력한다. 18번 나는 영어권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흥미롭다. 32번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자신을 칭찬하거나 기분을 즐겁게 한다.)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14를 통해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을 때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 후 공통성 값의 결과로 인해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부하값은 .803~.571의 값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전략의 모든 문항에서 학생들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중 문항 32번(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자신을 칭찬하거나 기분을 즐겁게 한다)의 평균이($M=3.20$) 가장 높았고 이를 통해 정의적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유형별로 영어 학습 전략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 여러 전략 중 정의적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김미래와 서천수, 2007; 김부연, 2008; 정세월, 2011).

표 14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문항		1	2	3	4	5	<i>M</i>	<i>SD</i>
13.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울 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려 노력한다. (.803)	변화O	5	5	24	6	3	2.93	1.00
	변화X	6	16	24	16	5	2.97	1.07
	전체	11	21	48	22	8	2.95	1.04
18. 나는 영어권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흥미롭다. (.612)	변화O	6	8	12	10	7	3.09	1.28
	변화X	4	17	26	12	8	3.04	1.07
	전체	10	25	38	22	15	3.06	1.15
32.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자신을 칭찬하거나 기분을 즐겁게 한다. (.571)	변화O	5	7	14	13	4	3.09	1.15
	변화X	6	14	17	16	14	3.26	1.26
	전체	11	21	31	29	18	3.20	1.21

또한, 문항 13번(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울 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려 노력한다, $M=2.97$)와 문항 32번($M=3.26$)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보다 정의적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의적 전략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전략을 지도하는 것은 영어에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두려움을 갖는 상급 학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 연구(한석분, 2009)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전략이므로 학생들의 정의적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4.1.7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학습자가 영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이나 추론해보는 전략이 포함된 인지 전략(9번 영어로 듣거나 읽은 정보의 내용을 요약해본다. 2번 나는 영어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한다. 5번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먼저 한 번 대충 전체 글을 훑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 자세히 읽는다.)의 분석 결과는 표 1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인 부하값은 .836~.529로 나타났다.

표 15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문항		1	2	3	4	5	<i>M</i>	<i>SD</i>
9. 영어로 듣거나 읽은 정보의 내용을 요약해본다. (.836)	변화O	5	15	11	8	4	2.79	1.16
	변화X	11	18	19	13	6	2.77	1.20
	전체	16	33	30	21	10	2.78	1.18
2. 나는 영어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한다. (.541)	변화O	3	7	8	16	9	3.48	1.20
	변화X	3	15	15	22	12	3.37	1.15
	전체	6	22	23	38	21	3.41	1.16
5.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먼저 한 번 대충 전체 글을 훑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 자세히 읽는다. (.529)	변화O	8	10	15	7	3	2.69	1.16
	변화X	18	18	14	15	2	2.47	1.19
	전체	26	28	29	22	5	2.56	1.18

전체 응답자에게서 문항 2번(나는 영어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한다)의 평균이 ($M=3.41$) 다른 문항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똑같은 문항으로 인지 전략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영어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해보는 전략을 가장 활발히 사용한다는 부분이 일치한다(정세원, 2011). 모든 문항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므로 이 집단의 인지 전략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인지 전략의 사용이 높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조일현과 김연희, 2014). 즉, 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인지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문항 9번(영어로 듣거나 읽은 정보의 내용을 요약해본다, $n=33$)과 문항 5번(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먼저 한 번 대충 전체 글을 훑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 자세히 읽는다, $n=28$)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아 대체로 인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습 내용의 큰 틀과 맥락을 파악하는 인지 전략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며, 비대면 수업에서 인지 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상윤, 2021).

4.2 팬데믹 영어 학습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자기효능감

표 16은 팬데믹 영어 학습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영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별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7 이상으로 분석되었기에 요인 1(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요인 2(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와 요인 3(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학생들이 일관성 있게 응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요인 4(온라인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신뢰도 계수가 .263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요인 4에 대한 응답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팬데믹 영어 학습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을 제거하지 않고 결과에 포함하였다.

표 16
자기효능감 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인명	문항 수	Cronbach's alpha	M
요인 1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9	.880	3.10
요인 2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	9	.887	2.85
요인 3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	5	.793	2.83
요인 4 온라인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3	.263	2.37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영어 자기효능감을 밝히기 위해 영어 학습 전략 분석과 마찬가지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로 설정하였고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통성 분석 결과, 여러 개의 변수들 중 불필요한 변수라고 보여지는 문항 23번(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을 통해 영어 공부를 더 잘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이 있었지만, 연구자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 문항은 온라인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이므로 제외하지 않고 요인에 포함시켰다.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온라인 자기 효능감이라는 요인들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과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총 4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4.2.1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표 17은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부하값은 .772~.470 사이이다. 학습을 수행하거나 학습자가 영어 학습 환경에서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있고(1번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21번 나는 영어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잘 할 자신이 있다.) 주어진 공부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7번 나는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0번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번 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요인 1을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명명한다.

문항 11번(나는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과 문항 19번(온라인 환경 영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은 선행연구(이성아, 2021)에서는 온라인 매체 자기효능감에 속하였으나 연구자가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의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학생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요인 1에 포함되었다.

표 17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문항		1	2	3	4	5	<i>M</i>	<i>SD</i>
7. 나는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772)	변화O	3	17	14	14	3	2.94	1.04
	변화X	6	11	23	10	9	3.08	1.17
	전체	9	28	37	24	12	3.00	1.12
10.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54)	변화O	5	13	19	11	3	2.88	1.05
	변화X	3	13	20	18	5	3.15	1.03
	전체	8	26	39	29	8	3.02	1.04
17. 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49)	변화O	2	2	20	19	8	3.56	.94
	변화X	1	7	9	25	17	3.84	1.03
	전체	3	9	29	44	25	3.72	.99
12.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영어 읽기자료(교과서, 보충 프린트, 모의고사 독해지문)를 이해할 수 있다. (.728)	변화O	2	14	20	11	4	3.01	.98
	변화X	4	11	15	21	8	3.30	1.13
	전체	6	25	35	32	12	3.16	1.07
21. 나는 영어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잘 할 자신이 있다. (.694)	변화O	4	24	14	6	3	2.60	1.00
	변화X	5	17	18	11	8	3.00	1.17
	전체	9	41	32	17	11	2.82	1.10
1.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662)	변화O	4	14	20	9	4	2.90	1.04
	변화X	4	15	24	10	6	2.98	1.05
	전체	8	29	44	19	10	2.94	1.04
11. 나는 온라인 환경(Zoom)의 영어 수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587)	변화O	6	12	22	8	3	2.80	1.03
	변화X	4	21	14	13	7	2.96	1.15
	전체	10	33	36	21	10	2.88	1.09

19. 온라인 환경 영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485)	변화O	5	15	11	14	6	3.01	1.20
	변화X	3	9	17	20	10	3.42	1.10
	전체	8	24	28	34	16	3.21	1.15
2.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계획한 만큼 한다. (.470)	변화O	3	6	21	15	6	3.29	1.02
	변화X	5	18	17	15	4	2.91	1.08
	전체	8	24	38	30	10	3.09	1.07

본 연구의 전체 고등학생들은 문항 11번(나는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에서 ‘그렇다($n=21$)’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다($n=33$)’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이성아(2021)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2020년 1,2학기 동안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영어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년간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라인 환경의 기능이 익숙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고 수업 환경이 주마다 변화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의 기능을 집중하여 배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항 17번(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결과($M=3.72$)가 가장 높았는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에 관한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았고 이는 대학생의 영어 자기효능감에 관해 조사한 김정현(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서 문항 2번(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계획한 만큼 한다)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 반면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전과 다르게 영어 학습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한 학습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이후로 다들 공부에 소홀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 학생들($n=19$)도 있었고,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더 열중하게 되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n=11$). 후자의 응답을 통해 문항 12

변(선생님이 제시해주신 영어 읽기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의 결과와 연결할 수 있는 데 교수자가 제시한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보아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로 인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조재춘, 2012)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의 이해와 관련된 자신감에서는 본 연구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4.2.2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

표 18은 영어의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기능을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관한 문항 6번(나는 영어 말하기를 좋아한다), 문항 13번(나는 영어 쓰기를 좋아한다), 문항 5번(나는 영어 독해를 좋아한다)으로 구성되었고, 그 과제를 잘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항(18번 나는 영어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다. 15번 나는 영어로 된 메시지나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9번 나는 영어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3번 나는 영어지문을 읽을 때 잘 모르는 어휘가 발견되면 그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다.)으로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요인 부하값은 .825~.401 사이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 중 문항 3번(나는 영어지문을 읽을 때 잘 모르는 어휘가 발견되면 그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다)은 선행연구에서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속해 있었지만(박세리와 이상도, 2016; 이해원, 2006)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요인 2에 포함되었다. 문항 3번은 영어 읽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어지문을 읽는 과제를 수행할 시 본인이 모르는 어휘를 발견하였을 때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 효능감의 요인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표 18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

문항		1	2	3	4	5	<i>M</i>	<i>SD</i>
6. 나는 영어 말하기를 좋아한다. (.825)	변화O	5	15	10	15	6	3.03	1.21
	변화X	8	12	19	12	8	3.00	1.23
	전체	13	27	29	27	14	3.01	1.21
13. 나는 영어 쓰기를 좋아한다. (.803)	변화O	8	19	15	7	2	2.48	.99
	변화X	12	19	15	7	6	2.59	1.23
	전체	20	38	31	14	7	2.53	1.12
5. 나는 영어 독해를 좋아한다. (.639)	변화O	10	14	18	8	1	2.52	1.04
	변화X	11	15	16	12	5	2.74	1.22
	전체	21	29	34	20	6	2.63	1.14
18. 나는 영어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다. (.613)	변화O	3	15	18	12	3	2.94	1.00
	변화X	4	14	24	13	4	2.98	1.00
	전체	7	29	42	25	7	2.99	.99
20. 나는 영어 듣기를 좋아한다. (.604)	변화O	4	16	20	7	4	2.82	1.03
	변화X	7	18	20	8	6	2.79	1.14
	전체	11	34	40	15	10	2.80	1.09
15. 나는 영어로 된 메시지나 뉴스 를 이해할 수 있다. (.485)	변화O	3	15	22	8	3	2.86	.95
	변화X	4	19	15	17	4	2.96	1.08
	전체	7	34	37	25	7	2.92	1.02
9. 나는 영어로 글을 작성할 수 있 다. (.427)	변화O	6	21	14	9	1	2.56	.98
	변화X	8	9	21	18	3	2.98	1.10
	전체	14	30	35	27	4	2.80	1.07
3. 나는 영어지문을 읽을 때 잘 모 르는 어휘가 발견되면 그 의미를 대 략 추측할 수 있다. (.410)	변화O	4	11	20	10	6	3.05	1.10
	변화X	7	12	14	21	5	3.08	1.17
	전체	11	23	34	31	11	3.07	1.13

16. 나는 영어 듣기를 잘 할 수 있다. (.401)	변화O	3	21	13	8	6	2.86	1.13
	변화X	8	11	19	16	5	2.98	1.16
	전체	11	32	32	24	11	2.93	1.15

우리나라의 경우 교실 밖에서는 영어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학생들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듣기와 읽기 위주의 이해를 위한 학습을 주로 받아 왔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문승재와 한호, 2013; 박태준과 장재학: 2017). 영어 학습경험이 말하기 지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인식한 선행연구(김종훈, 2014)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전체 고등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쓰기, 읽기 그리고 듣기 중 말하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M=3.01$). 대체로 팬데믹으로 인한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없는 집단에서 과제 효능감이 더 높았지만, 변화가 있는 집단이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M=3.03$), 듣기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M=2.96$)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영어 쓰기와 관련된 문항 13번(나는 영어 쓰기를 좋아한다, $n=38$)과 문항 9번(나는 영어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n=30$)에는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쓰기 불안감과 쓰기 자기효능감이 영어 쓰기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히고 쓰기 능력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영어 쓰기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한송미, 2018). 즉 영어 쓰기 자기효능감과 쓰기 능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고등학생들은 영어 쓰기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쓰기 과제 수행 중에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집단이 높은 쓰기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다음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Hidi & Boscolo, 2006)에 따라 학생들의 쓰기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읽기와 관련된 문항 3번(나는 영어지문을 읽을 때 잘 모르는 어휘가 발견되면 그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M=3.07$)이 가장 높았고 학생들은 읽기와 관련된 과제 효능감은 높았다. 학생들이 읽기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증가한다는 결과(박은, 2016; 은호윤, 2018; 최윤희,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나은 읽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은 학습 지도가 필요하다.

4.2.3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

표 19는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에 관한 결과이다. 학생들이 영어 학습상황에서 스스로 학업 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14번 나는 영어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 어려우면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26번 나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8번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다. 4번 나는 영어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과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항(24번 나는 영어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에 대한 내용으로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이라고 칭한다. 요인 3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부하값은 .855~.478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14번(나는 영어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 어려우면 더 이상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의 평균($M=3.21$)이 가장 높았고, 110명의 학생 중 39명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은 새롭게 배운 내용이 어려워도 끝까지 노력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될 수 있다(남경득과 손은정, 2013; 송지희, 이지현과 김혜영, 2017; 정수경, 2014). 문항 8번(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다)의 결과에서 ‘그렇다($n=32$)’에 응답률이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학원이나 과외 등 영어 학습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설문 문항 중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답한 학생들 중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n=8$). 이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고등학생들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조혜선, 2020).

표 19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

문항		1	2	3	4	5	<i>M</i>	<i>SD</i>
24. 나는 영어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855)	변화O	8	21	17	4	1	2.39	.91
	변화X	8	23	19	4	5	2.57	1.08
	전체	16	44	36	8	6	2.50	1.03
14. 나는 영어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 어려우면 더 이상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833)	변화O	4	22	15	8	2	2.64	.97
	변화X	6	17	18	14	4	2.88	1.09
	전체	10	39	33	22	6	3.21	1.05
26. 나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585)	변화O	3	15	18	10	5	2.98	1.06
	변화X	3	13	24	13	6	3.10	1.02
	전체	6	28	42	23	11	2.94	1.03
8.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다. (.509)	변화O	6	12	14	16	3	2.96	1.13
	변화X	10	17	11	16	5	2.81	1.25
	전체	16	29	25	32	8	3.09	1.20
4. 나는 영어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 (.475)	변화O	5	14	13	13	6	3.01	1.19
	변화X	6	14	21	13	5	2.94	1.10
	전체	11	28	34	26	11	3.01	1.14

문항 24번(나는 영어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의 평균값($M=2.50$)은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요인 1인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의 문항 17번(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응답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의 요인들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영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황명환, 2017), 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손성희와 전나영, 2011)가 존재하므로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에게도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4.2.4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기효능감의 마지막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규, 2021; 송송이, 2021). 온라인 환경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의 수업보다 흥미도가 떨어지고 쌍방향 소통이 힘들어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다(김혜리, 2020; 정지윤, 2021). 그러므로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선행연구(김보민, 2016; 김정현, 2021)의 분류에 따라 연구자는 5가지 문항을 선정하였으나 요인 분석 결과 3가지 문항을 통해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 대한 불안감(문항 22번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긴장되고 불안하다), 부담감(문항 25번 온라인 환경에서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된다)과 자신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 영어 수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문항 23번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 공부를 더 잘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명명한다. 요인 부하값은 .789~.419로 나타났다.

문항 22번(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긴장되고 불안하다, $M=3.77$)과 문항 25번(온라인 환경에서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된다, $M=3.62$)의 문항의 분석 결과, 두 문항이 높은 평균을 차지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안하고 부담되지 않으며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서 대학생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복습하기 쉽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인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에 큰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황요한과 김창수, 2021) 불안감이 크지 않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연구(김민규, 2021)에서 학생들은 온

라인 영어 수업이 공부시간을 절약하고 비대면 수업보다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볼 수 있어서 편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는 표 17의 자신감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0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항		1	2	3	4	5	<i>M</i>	<i>SD</i>
22.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긴장되고 불안하다. (.789)	변화O	13	22	13	3	0	2.11	.86
	변화X	16	20	15	6	2	2.28	1.08
	전체	29	42	28	9	2	3.77	.98
25. 온라인 환경에서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된다. (.623)	변화O	16	18	14	2	1	2.09	.96
	변화X	10	23	12	10	4	2.57	1.16
	전체	26	41	26	12	5	3.62	1.09
23.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 공부를 더 잘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419)	변화O	6	20	19	6	0	2.49	.85
	변화X	10	20	17	7	5	2.61	1.15
	전체	16	40	36	13	5	3.42	1.03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covid-19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기술적 준비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수자 및 학습자가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점차 강의의 질과 운영 방식이 개선되면서 학생들은 수업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4.3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

4.3.1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

표 21은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변화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10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변화가 없다’($n=67$)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고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영어 학습 전략 요인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전략의 변화

영어 학습 전략 요인	변화 O ($n=43$)		변화 X ($n=67$)		<i>t</i>	<i>p</i>
	<i>M</i>	<i>SD</i>	<i>M</i>	<i>SD</i>		
	영어 학습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	2.80	.691	2.91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2.75	.818	2.84	.957	-.506	.614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	2.90	.773	2.94	.947	-.227	.821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보상 전략	2.53	.745	2.52	.778	.050	.960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략	3.03	.894	3.09	.931	-.311	.756
영어 학습에서의 정의적 전략	2.99	.901	2.87	.935	.647	.519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3.16	.832	3.19	.974	-.162	.872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614$)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한 시기가 이미 팬데믹이 지속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때(2021년 12월)이므로 설문지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팬데믹 상황의 영어 수업 방식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한 것으로 그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수업이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 결과, 모든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이상윤, 2021).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사회적 전략과 인지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5 참조). 사회적 전략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며 대화 기회를 찾아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생이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교실로 제한되어 있고(문승재와 한호, 2013; 박태준과 장재학: 2017) 팬데믹 상황을 겪다보니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는 것($p=.756$)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지 전략과 관련된 문항은 영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해보고 추론해보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표 15 참조). 인지 전략의 사용이 높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조일현과 김연희, 2014)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대체로 인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 모두에서 인지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어로 표현해보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전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고 그 이유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t=-.162, p=.872$)

본 연구의 전체 학생들 중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전략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수업 방식이나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이상미, 문소연, 문유선, 김하예슬과 김남희, 2021; 이상윤, 2021).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온라인 학습공간에서 학습자의 인식이나 전략 사용이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박성익, 이상은과 송지은, 2007). 이 연구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내용 요인으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인지적 전략’을 강조하였다. 반면, 오프라인 학습에서는 교수자가 학습내용을 설명하거나 제시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전략이 효과적인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 전략은 수업 상황에 맞춰 학습될 수 있고, 학습자가 학습과제와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Duncan & Mckeachie, 2005). 팬데믹 상

항 속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학생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3.2 팬데믹으로 인한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의 변화

표 22는 팬데믹으로 인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유무에 따라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자신감, 과제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의 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신감 요인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두 가지 이유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표 6 참조).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표 5 참조)이 더 많았고 분석 결과 자신감과 관련된 문항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으므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미 영어 학습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표 17 참조).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p=.220$).

표 22
팬데믹으로 인한 자기효능감의 변화

자기효능감 요인	변화 O		변화 X		t	p
	(n=51)		(n=59)			
	M	SD	M	SD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3.00	.647	3.18	.864	-1.23	.220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	2.80	.739	2.90	.861	-.655	.514
영어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	2.95	.493	2.96	.558	-.091	.927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3	.604	2.49	.687	-2.06	.042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이 수업 방식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수업을 실시한 집단이 일반적인 수업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분석되었다(한지희와 임희정,

2011). 반면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p=.042$)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 온라인 교육에 관해서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자발적인 온라인 수업과 자발적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자발적인 온라인 수업을 더 선호하였고 동영상과 줌(Zoom)강의에 대한 만족도 결과 자발적 온라인 수업이 자기주도 학습,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한승우와 김보영, 2020).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covid-19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기술적 준비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수자 및 학습자가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어려움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계획 및 설계 문제, 온라인 학습 기술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문제 그리고 온라인 수업 운영 및 학습 효과 문제 등에서 다양한 비판이 있었다(이동주와 김미숙, 2020).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및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3차에 걸친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해서 점차 강의의 질이 향상하면서 만족도 또한 점차 상승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김동원, 김향정과 한태구, 2021).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처음 팬데믹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변화한 수업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비대면 수업에서의 보완 및 개선점을 통해 점점 온라인 수업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 해석된다.

4.4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는 표 23에 제시하였다.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는 .722~.026의 범위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중 영어 4-기능별 과제 효능감과 학습 전략 중 영어 학습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 사이의 관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고($p=.722$), 자신감과 인지 전략 사이의 관계도 높게 분석되었다($p=.710$). 과제 효능감은 영어의 4기능에(말하기, 쓰기, 독해, 듣기) 대한 선호와 그 과제를 잘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선호함에 따라 영어로 된 내용을 요약해보거나 발음을 연습하는 것 또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반복해서 자세히 읽어보는 것과 같은 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인지 및 상위인지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Pajares, 2008;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표 23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상위인지 전략	온라인 학습 방법	기억 전략	보상 전략	사회적 전략	정의적 전략	인지 전략
1	.690**	.645**	.559**	.481**	.564**	.567**	.710**
2	.523**	.576**	.431**	.532**	.514**	.572**	.722**
3	.329**	.395**	.076	.168	.157	.285**	.238**
4	.240*	.183	.155	.329**	.176	.302**	.026

* $p<.05$; ** $p<.01$

** 1=자신감, 2=과제 효능감, 3=자기조절 효능감, 4=온라인 영어 수업 부정적 인식

특히, 자기효능감의 요인들 중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어의 4-기능별 과제 효능감과 영어 학습 전략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활동

이 학생들의 정의적인 영역과 영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할부여 소집단 활동을 한 학생들이 자신감 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영어 쓰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학습자의 자신감과 영어 능력의 향상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성은경, 김보라와 조정래, 2018). 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을 지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 전략 지도 후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고, 말하기 듣기 시험에서 이해력과 과제 수행의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영어 말하기에 소극적이었던 학습자가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 질문하기 등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용희, 2021).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 전략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영어 학습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기조절 효능감과 기억 전략, 보상 전략, 사회적 전략 사이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어를 학습할 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전보다 더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영어를 학습할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문항에 포함된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의 상관계수는 .329~.026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상 전략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p=.329$)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고 있었고 이 수업 환경에서는 교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단어의 뜻을 추측해보거나 적절한 영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다른 단어나 문장을 대신 사용해보는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대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복습이 쉽고 개인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보상 전략과 같은 영어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해보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황요한과 김창수, 2021).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과 영어 학습 전략 간의 하위 요인들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김성양과 조규판, 2018; 이지혜와 하정

윤, 2016)처럼 자기효능감과 학습자의 학습 전략은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4.5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습 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의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하위, 중위, 상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자기효능감의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표 24
연구 참여자의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점수 범위	학생 수(명)
하위 집단	4.5~44점	38
중위 집단	45점~68점	35
상위 집단	70~100점	37

표 24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점수 범위와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영어 학업성취도는 연구 참여자 110명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은 4.5점~100점 범위로 평균 53.59로 나타났다. 먼저 영어 학업성취도 하위 집단은 110명의 학생들 중 38명으로 전체의 34.5%까지의 점수를 바탕으로 4.5점~44점까지의 범위에 속한다. 중위 집단은 3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전체의 66.4%까지 즉 45점~68점까지의 점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위 집단은 37명의 학생들이며 점수는 70점~100점까지의 학생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5.1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표 25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어 대화에 필요한 기억 전략’을 제외한 모든 영어 학습 전략의 요인에서 중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집단 그리고 상위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 학습 전략을 사용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와 상반된 결과를 알 수 있었다(양숙녀, 2020; 이수진, 2012; 정세원, 2011). 또한,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보다 사회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함을 보여주었다(박찬규, 2021). 사회적 전략은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질문하거나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집단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더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상위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위인지 전략의 경우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p=.015$). 이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와 일치하다고 할 수 있다(정용희, 2021). 학습자 스스로 영어 학습을 계획하고, 영어 학습을 반성하는 것과 같은 전반적인 영어 학습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위인지 전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영어 학습을 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학습 과정에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상 전략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p=.017$), 이는 EFL 중학생의 수준별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따른 영어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 연구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학습자들 모두 보상 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지순과 나경희, 2016). 보상 전략은 학습자들 간에 종종 나타나는 지식에 있어서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항과 관련된 것이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25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하위($n=38$)		중위($n=35$)		상위($n=37$)		<i>F</i>	<i>p</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상위인지 전략	2.90	.73	3.15	.93	2.57	.85	4.36	.015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2.84	.78	3.06	.93	2.54	.93	3.09	.051
기억 전략	3.03	.80	2.96	.90	2.77	.92	.927	.399
보상 전략	2.60	.77	2.74	.81	2.25	.61	4.24	.017
사회적 전략	3.00	.98	3.25	.93	2.97	.81	1.05	.352
정의적 전략	2.94	.91	3.10	.94	2.72	.88	1.609	.205
인지 전략	3.27	.83	3.35	.88	2.93	.99	2.124	.125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전략)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이라고 여겨진다($p=.051$). 온라인 성인 학습자의 영어 수업 상황 속에서 학습 전략을 분석한 결과 학습 전략 사용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학습 전략이 중요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오프라인 학습 상황에서 보다 낮고 이로 인해 학습 전략 사용도 적은 비율을 보여준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권경임, 2009). 온라인 환경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전략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학습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 전략의 적절한 사용은 학업 성취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적절한 사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어 수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표 26
상위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 사용의 차이

		상위인지 전략		보상 전략	
		평균차이	<i>p</i>	평균차이	<i>p</i>
하위	중위	-.251	.412	-.137	.708
	상위	.332	.207	.353	.103
중위	하위	.251	.412	.137	.708
	상위	.584	.011	.490	.016
상위	하위	-.332	.207	-.353	.103
	중위	-.584	.011	-.490	.016

표 26은 영어 학습 전략에서 집단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학습 전략을 나타낸 표이다. 7가지 영어 학습 전략 중 영어 학습 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과 영어 학습에서 보상 전략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여주었으며 두 전략 모두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영어 학습 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은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p=.011$). 학업 성취도가 높고 성공적인 학습자일수록 상위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혁일과 박순희, 2011; 김미래와 서천수, 2007; 정혜진, 2006)처럼 상위인지 전략은 학습자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신념과 학습 전략,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하 집단보다는 상 그리고 중 집단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본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김원과 심창용, 2014). 하위 집단과 중위 집단, 상위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 전교생의 영어 성적 평균이 하락하였고 하위 집단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관계없이 학습 전략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위 집단과 두 집단들 사이에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교과 흥미도, 학습 전략 사용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지 조사한 연구에서는 상위 집단은 보상 전략, 정의적 전략, 상위 인지 전략, 사회적 전략 그리고 기억 전략 순으로 사용 정도가 높았으나 하위 집단에서는 사회적 전략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전략 사용 차이를 볼 수 있었다(박찬규, 2021). 마찬가지로 상위인지 전략과 관련된 학습방법은 영어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준열과 정충대, 2017).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가 있었으며,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보다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학습 전략 사용이 높으면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여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영어 학습에서 보상 전략 또한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 ($p=.016$)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많았고(권혁일과 박순희, 2011; 박찬규, 2021; 최준열과 정충대, 2017)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의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상위 집단의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보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었고 이런 전략들이 영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박찬규, 2021; 위혜정과 조정순, 2010)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상 전략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4.5.2 영어 성취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27은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요인은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중·고등학생의 영어 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양상을 분석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하위 영역 모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김배성, 2022). 설문지의 기본문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중·하위 집단의 학생들은 수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자기효능감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상위 집단의 학생들은 전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고 응답했지만 중·하위 집단의 학생들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27
영어 성취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하위(<i>n</i> =38)		중위(<i>n</i> =35)		상위(<i>n</i> =37)		<i>F</i>	<i>p</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자신감	3.05	.77	3.28	.74	2.97	.78	1.60	.205
과제효능감	2.83	.78	3.04	.79	2.70	.82	1.64	.199
자기조절 효능감	2.86	.55	2.98	.51	3.03	.50	1.04	.357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인식	2.32	.61	2.47	.70	2.32	.66	.626	.537

표 27은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김청자와 김현규, 2010; 윤은종과 김희수, 2006; Zimmerman & Martinez-Pons, 1986)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위·중위·상위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을 뿐 학생들이 특정한 학습 행동을 수행하면서 성공 경험을 하고 이 경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업에 임한다면 실제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김유정, 2017; 김태한, 2012; 송지영과 최문홍, 2017; 황명환, 2017; Saito, 2020; Zarei, 2018).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분석 결과 중위 집단이 자신감, 과제효능감과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인식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상위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값($M=3.03$)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영어 학습상황에서 스스로 학업 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영어공부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위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EBS 방송이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과외, 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한다고 응답한 부분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메타 인지적 변인을 탐색한 연구(진경애 외 3인, 2016)에서 조사한 것처럼 학원 수강,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사교육을 수강하는

기간이 길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았으며 과제 도전 수준에도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의 학생들보다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감과 관련된 문항들은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얼마나 영어 공부를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수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성적이 하락하다보니 자기효능감도 전과 다르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위 집단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하위 집단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전교생의 영어 성적의 평균이 하락하여 자신의 성적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자신감의 정도가 팬데믹 전과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상위 집단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의 수업을 통해 자기조절 효능감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스스로 학습 내용을 재구조화할 수 있고 자기조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내용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중위 집단에서 평균($M=2.47$)이 가장 높았고 상위와 하위 집단에서는 똑같은 평균값($M=2.32$)을 보여주었다. 설문지의 기본 문항 중 팬데믹 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답하였는데 총 51명의 학생들 중 중위 집단의 응답자가 비대면 학습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 수업에 익숙해지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상위 집단의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보다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서 온라인 환경의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환경의 수업이 더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환경은 편하긴 하지만 자신의 성적을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보건계열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온라인 수업 성취도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수업의 성취도는 학년이 높고, 이전에 온라인으로 수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았다는 것으로 보아(주은솔, 오은주와 방요순, 2021),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면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국내 중학교 3년간의 영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참여, 학업성취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송지은, 2021). 또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보다 학업성취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송지은, 2021; 조수민, 2016; Kim, 2019).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성공 경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며 교수자의 관심과 독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6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

4.6.1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

영어 학습 전략과 영어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의 표 28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 전략 요인을 독립변수로, 영어 학업성취도 성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F(7, 102)=.812(p=.580)$ 로 나타나 전체 영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이 영어 학업성취도 성적에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어 성취도에 따른 학습 전략을 비교했을 때 상위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이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전략은 성취도 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학습 전략 요인이 본 연구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 사용의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는데 학습 전략 사용이 학업성취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김연수, 2014). 이 때 영어 학습 전략은 전체 영어 학습자의 성적에 있어서 12%의 설명력을 보였다($Adj-R^2=.12$).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12% 정도가 영어 학습 전략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8

영어 학습 전략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수	β	t	p	$Adj-R^2$
상위인지 전략	-.027	-.154	.878	
온라인 환경의 영어 학습 방법	.009	.062	.951	
기억 전략	-.088	-.633	.528	
보상 전략	-.183	-1.31	.190	.12
사회적 전략	.222	1.56	.120	
정의적 전략	.009	.068	.946	
인지 전략	-.093	-.600	.550	

그러나 전략은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임효진과 이순영, 2019). 이 결과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성취목표와 학업 성취의 관계가 학습 전략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Phan, 2009)에 의해 지지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자기조절학습의 측면에서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은영과 서은희, 2015; Zimmerman, 2000)를 통해서 학습 전략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전략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학습 결손 또는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 기술인 학습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6.2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 요인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

표 29는 연구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요인을 독립변수로, 영어 학업성취도 성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F(4, 104)=.429(p=.787)$ 로 나타났으며 영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요인이 학업성취도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

인들 중 자신감, 과제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은 이 세 가지 요인의 매우 주관적인 성격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 중 자신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강효숙, 2013). 또한 자신감의 설문 문항은 학습 수행과 영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있게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표 17 참조), 과제 효능감은 영어 4-기능에 대한 본인의 선호도에 관한 내용이며(표 18 참조), 자기조절 효능감은 스스로 학업 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표 19 참조)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인 속성은 개인이 가지는 보편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제-특수적 성향인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기엔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는 요인은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된다(강효숙, 2013). 자기효능감은 영어 학업성취도에 22%의 설명력을 보였다($Adj-R^2=.22$). 다시 말해, 영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약 22% 정도가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습 관련 정의적 특성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조사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나경숙, 2008).

표 29
영어 학습 자기효능감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수	β	t	p	$Adj-R^2$
자신감	.091	.571	.569	.22
과제 효능감	-.047	-.317	.752	
자기조절 효능감	.134	1.16	.248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인식	.023	.225	.822	

반대로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영어 읽기성취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연구(김배성, 2022)와 자기효능감 외 다른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학업성취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송지은, 2021). 영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학업 성취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영어 학업성취 역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힌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 지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학업 성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여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학습자를 하위, 중위와 상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두 요인이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팬데믹 상황의 영어 수업 환경에서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과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62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팬데믹 영어 학습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을 밝히기 위해 사후 t -검정을 실시하여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고등학생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략에 관한 분석 결과 총 7가지의 영어 학습 전략 요인들 중 학생들은 상위인지 전략과 온라인 영어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생들은 사회적 전략, 인지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감, 영어 4-기능별 과제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과 온라인 영어 수업 환경에서의 부정적 인식 총 4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잘 배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학생들은 말하기 과제와 읽기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높았지만, 쓰기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 학습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의 요인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자 할 때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마지막 요인인 온라인 영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에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두 요인 모두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한 집단이 학습 전략 요인 중 사회적 전략과 인지 전략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네 번째 연구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두 요인은 전반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과제효능감과 학습 전략의 요인 중 영어 사용 시 학습자의 인지 전략의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자신감과 인지 전략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요인들 중 자신감, 4-기능별 과제 효능감과 영어 학습 전략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 성취도 수준을 하위, 중위 그리고 상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습 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영어 학습 전략을 수준별로 비교한 결과 중위 집단의 평균이 기억 전략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하위 집단, 상위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집단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상위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으로 나타났고 두 전략 모두 중

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팬데믹 영어 학습 환경에서 세 집단 간 자기효능감의 요인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4가지 요인들 중 자기조절 효능감을 제외하고는 중위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상위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 모두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2 교육적 함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팬데믹 영어 학습 환경에서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두 요인의 관계를 살펴본 후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어 수업을 병행하였다. 온라인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 결과를 분석했을 때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의 수업을 부담이 없고 자유롭다는 점에서 편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연구 문제 1의 결과에서 온라인 영어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 전략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학생들은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교사나 또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학습 실재감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다양한 학습활동과 토론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사회적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전략이 학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갑현, 2021)와 이 전략을 통해 학생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연구 결과가(정용희, 2021) 존재하는 것처럼 학습자에게 학습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다양한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문제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과제는 선호하였지만 말하기와 쓰기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는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치며 학생들이 4 가지 기술에 스스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말하기나 쓰기 과제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조재춘, 2012).

연구 문제 3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해 영어 학습 전략 및 자기효능감에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두 요인 모두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유발된 불안정한 요소들로 인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이 종식되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여전히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최윤정과 지난영, 2020). 또한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의 적절한 교육시간을 마련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여(박진찬과 백민호, 2021)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도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문제 4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과 영어 학습 전략 간의 요인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교실 학습에 적용하려는 전략 중심 지도법(Strategies-based Instruction)의 중요성을 보여준다(Cohen, 1998; McDonough, 1999). Wenden(1985)은 학습자 전략이 학습자 자율성의 핵심이며 언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이 자율성을 촉진시켜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Chamot(2005)은 명시적 교수는 학생들에게 하나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상위 인지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와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는 무엇이 학습자를 성공적이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자로 만드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학생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전략 사용을 위한 환경을 교실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Bialystok, 1985). 즉, 학습자의 학습 유형과 잠재적인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 포함시키며 학습자가 자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준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상위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이었다. 두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학습 전략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전략들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도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 범용성이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이주은, 2021). 또한, 상위 집단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수업을 통해서 자기조절 효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사교육의 도움으로 인해 자기조절 효능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영어 학습을 할 때 스스로 학습하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업성취를 이루고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정서와 기분을 관리하며, 필요한 학습자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며, 이러한 훈련은 일시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이다(Sitzmann & Ely, 2010). 그러므로 학교 수업과 혼자 학습을 할 때 스스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고 자기조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이 광주광역시 J 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있으며 설문지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로만 진행하였다. 이는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 기준이 명확해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심층면접법을 통해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영어 학업성취도 검사를 위해 연구자가 실제로 시험을 시행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성적을 간접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처음 연구를 실시했을 때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으로만 분류하여 더 명확한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위 집단을 제외하고 하위와 상위 집단으로만 분석을 실시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고 중위 집단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 세 집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영어 수준에 상관없이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 의견이므로 영어 수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5.4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과 대상이 한 곳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산시켜 다양한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영어 수업을 수강했을 때의 자기효능감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비교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읽기 성적과 듣기 성적으로 구분하여 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조사한다면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 수준별로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습 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한 연구이기에 상위와 하위 집단으로만 구분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고 싶었으나 중위 집단을 포함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의 영어 수업을 직접 관찰하면서 영어 수업 시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새로운 영어 학습 전략을 발견할 수 있고 영어 교육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효능감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팬데믹은 약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엔데믹(endemic)을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어 학습 환경에서든지 학습자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율성을 촉진시키며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유형 및 전략을 파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돈. (2021). 코로나 19시대, 비대면 교양 영어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D대학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2)*, 1013-1022.
- 강정화. (2010). *e-Learning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최적몰입경험과 학업만족도 및 학습효과의 관계*.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 강효숙. (2013).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강원: 강원대학교.
- 교육부. (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권경임. (2009). *온라인 영어 수업·학습 활동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선호도와 학습 전략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권선희, 류현숙. (202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 및 학습자 상호작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참여도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1(11)*, 87-97.
- 권영애, 오방실. (2022). 대면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자의 학습전략 비교분석 연구. *교육논총, 42(1)*, 137-150.
- 권혁일, 박순희. (2011). 시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영어 학습태도,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87-210.
- 김갑현. (2021). *중학생 영어 문법 전략사용이 영어 문법 지식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김강희. (2020). 대학교 교양 교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운영의 효과 및 한계 연구 -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5)*, 239-249.
- 김담실, 이성원. (2019). 교과흥미 자기조절학습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관계분석: 중학교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3)*, 51-59.
- 김동원, 김향정, 한태구. (2021).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및 인식 변화 연구 - C교육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6(1)*, 73-101.
- 김미래, 서천수. (2007).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영어 학업성취도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19(1)*, 135-159.

- 김민규. (2021). *고등학교 온라인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식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 김배성. (2022).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읽기전략 및 영어읽기성취도 사이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김범주. (2021). 코로나19 사태의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 수도권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9(4), 107-129.
- 김병선. (2019). 영문 속독 연습이 대학영어 수강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 24(3), 245-271.
- 김보민. (2016). *영어 자기효능감과 영어능력, 학습동기 및 불안감 사이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김복권. (2017). 특성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별 학습전략, 학습동기,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47-66.
- 김부연. (2008). 한·중 중학생의 영어 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비교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0(1), 41-69.
- 김성양, 조규판. (2018). 여고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455-472.
- 김성연, 김원기. (2005). 학습자 자율성과 실용영어능력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7(3), 107-129.
- 김성해, 홍서경. (2021). 비대면 수준별 대학영어수업의 학업 성취도 변화 및 학습자 만족도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65(4), 67-91.
-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아영.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학지사.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 39(1), 95-123.
- 김아영, 차정은. (2003).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43.
- 김연수. (2014). *자기주도성과 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 김영희, 김영수. (2006). 온라인 영어 쓰기 학습에서 학습자 개인차 변인, 몰입(flow), 언어 학습전략, 성취도, 만족도의 관계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4), 289-314.
- 김원, 심창용. (2014). 지역별 영어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비교. *초등영어교육*, 20(4), 91-117.
- 김유정. (2017). 교과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종단적 탐색. *외국학연구*, 40, 11-34.
- 김유정, 박리리, 이지연. (2020).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탐색-혁신학교와 비 혁신학교 비교. *영어교육*, 25(1), 21-48.
- 김은영, 서은희. (2015). 성취목표지향성,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의 관계: 학업적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99-119.
- 김은진. (2013). *학업상황의 정서조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 김재근. (2005). *자기효능감, 학교학습동기, 사회적 지지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흥익대학교.
- 김정현. (2021).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 만족도와 영어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4(4), 189-213.
- 김정희. (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영재와 영재교육*, 5(1), 5-24.
- 김종훈. (2014). 예비 영어교사의 영어 말하기 지도에 대한 신념. *영어영문학*, 19(4), 255-280.
- 김지윤. (2020). 다매체시대 효율적 토론 수업 연구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델 비교와 그 의미. *사고와표현*, 13(2), 213-252.
- 김청자, 김현규. (2010).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연구. *교육연구*, 2010(-), 1-15.
- 김태한. (2012).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중학생들의 영어 과목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1), 47-68.
- 김태희. (2017). *요약하기 및 자기질문전략 연계 활동이 영어 학습자들의 읽기 및 쓰기,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해동. (2003). 대학생과 고교생의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변화 비교, *응용영어학* 19(1), 189-212.

- 김혜리.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로그형 초등영어 독서 프로그램 개발. *초등영어교육*, 26(4), 181-204.
- 김희수. (2004). 대학생들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9, 101-115.
- 나경숙. (2008). *학습전략과 학습관련 정의적 특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 나동진, 신미경, 조인근. (2008). 학업 성취의 사회적 목표와 학업 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불안의 매개 효과. *교육종합연구*, 6(1), 131-152.
- 남경득, 손은정. (2013). 자기조절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0-280.
- 도재우. (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2), 153-173.
- 문승재, 한호. (2013). Tracking을 이용한 영어말하기 능력 향상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5(2), 73-92.
-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2007).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5(1), 17-45.
- 박세리. (2017). *대학생들의 영어 어휘 및 독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 박세리, 이상도. (2016). 영어독해 능숙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관계 분석. *교사교육연구*, 55(3), 377-388.
- 박영옥. (1999). *자기효능감 및 학습정의특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 (2016). 상호적 읽기방법에 의한 읽기전략 상위인지, 읽기이해 및 어휘학습에의 효과. *교원교육*, 32(2), 67-88.
- 박지순, 나경희. (2016). EFL 중학생의 수준별 영어 학습전략 사용에 따른 영어 성취도의 변화 분석. *영어영문학연구*, 58(1), 355-372.
- 박지윤. (2019). *2015 개정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전략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 박진찬, 백민호.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분야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3), 640-654.

- 박찬규. (2021). 대학생의 영어 교과 흥미도,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의 관계분석. *영어영문학연구*, 63(2), 247-267.
- 박태준, 장재학. (2017). 의사소통중심 영어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교사 의견 조사 연구. *영어학*, 17(4), 839-863.
- 박헌일. (2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 연구. *계명연구논총*, 18(1), 5-23.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 성은경, 김보라, 조정래. (2018).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 쓰기 능력에서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9-150.
- 손성희, 전나영. (2011).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93-111.
- 송성순.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 송송이. (2021). *코로나-19 시대에 미용 전공 대학생의 학습자 특성과 블렌디드 러닝이 학습 몰입 및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경대학교.
- 송승민, 이유현. (2012).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25-46.
- 송지영. (2017). *한국 대학생의 영어 읽기·듣기능력과 학습자 변인*.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 송지영, 최문홍. (2017). 영어 학습동기와 성취도 간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 듣기와 읽기의 비교분석. *현대영미어문학*, 35(3), 203-229.
- 송지은. (2021). *중학생의 영어 자기효능감, 수업참여, 수업방법 및 학업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부산: 부경대학교.
- 송지희, 이지현, 김혜영. (2017). 학습에 대한 능력 및 인지통제가 수업에 대한 충성도 및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플립러닝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4(2), 33-58.
- 신의정, 이용남. (2004). 영어학습전략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42(2), 591-617.

- 신종호, 신태섭. (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 5-23.
- 양숙녀. (2020). *중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오동주, 황흥섭. (2020).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인식,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 양상. *사회과교육*, 59(3), 223-250.
- 오영범, 이창두. (2012).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수업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17-326.
- 위혜정, 조정순. (2010).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경우. *영어학*, 10(4), 807-838.
- 유경애. (2020). 온라인 교양수업에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비교 분석. *교양학연구*, 13, 33-58.
- 유미영, 홍혜영.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4(4), 915-937.
- 유민선. (2022). *코로나 19에 따른 중학교 원격교육 경험 후 교육격차: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충북: 충북대학교.
- 유지현, 이숙정. (2012). 학업적 정서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6(4), 1137-1159.
- 유하원. (2021). *대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전략, 학습전략, 평가중요도의 관계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 윤은종, 김희수. (2006).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4(2), 57-70.
- 윤혜민, 이진화. (2014). 학교급별 자기주도 영어학습 능력과 학습전략 사용 양상 관련성 연구. *외국어 교육*, 21(3), 73-97.
- 은호윤. (2018).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언어학*, 26(1), 221-240.
- 이경국. (2008). 메타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업교육연구*, 21, 115-139.
- 이경랑. (2010). 영어 학습 전략 이용과 인식에 대한 통시적 분석. *영어학*, 10(3), 571-594.

- 이경아. (2004).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과의 상관관계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10(4), 19-45.
- 이경하, 차지영. (2020). 비대면 방식의 세미나/글쓰기 수업사례연구: 덕성여대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5), 61-99.
- 이동주, 김미숙.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대학 온라인 원격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멀티미디어와 언어교육*, 23(3), 359-377.
- 이미정. (2004).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영어성취도와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 이보경.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4), 97-112.
- 이상미, 문소연, 문유선, 김하예슬, 김남희. (2021). 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른 학습 만족도 및 성과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16(1), 169-199.
- 이상윤. (2021).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수원: 아주대학교.
- 이성아. (2021). *온라인 매체 자기효능감, 교수 실재감이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성혜, 채유정. (2016). 온라인 과학탐구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전략 활용, 수강지속의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6(2), 365-387.
- 이수진 (2012).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취목표와 학업노력 및 인지전략이 영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0(4), 103-124.
- 이시철, 김선영, 박상훈. (2020). 대학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수업 만족도 평가: 경북대학교의 비대면 학기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993-1019.
- 이옥주. (1998). *영어 학습동기, 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 이주은. (2021). *한국 EFL 학습자들의 교실 밖 온라인 영어 학습 활동 및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의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 대학교.

- 이지혜, 하정윤. (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수자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259-278.
- 이현숙, 신진아, 김경희. (2013). 다층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교육 맥락변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6(2), 477-506.
- 이혜원. (2006). *영어 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 이효웅. (2002). 영어 학습 태도, 동기 및 책략의 상관관계. *영어교육연구*, 14(1), 189-212.
- 임규연. (2011).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협동학습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과의 관계.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2), 19-38.
- 임수현, 김성연. (2022).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 환경에서의 대학생들의 학습 전략 사용 양상과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인식. *한국교육*, 49(1), 57-86.
- 임애련. (2021). Covid 19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성 연구: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2): 57-66.
- 임윤경. (2018). *영어 사교육 경험이 중학생의 영어 문법 학습전략 및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 임효진, 이순영. (2019). 성취목표, 학습전략, 행동전략의 유형과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30(2), 1-16.
- 정대연, 배지영. (2021). 고등학생들의 디지털 영어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영어교과교육*, 20(1), 179-201.
- 정미선. (2007).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과학탐구능력, 학업성취도, 과학적 태도 및 탐구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 정병삼. (2011).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토익성적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교육평가연구*, 24(2), 377-399.
- 정성식. (2020. 4. 2). *코로나 블루,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들어본 코로나 블루 예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드와이드웹: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1000>. HTML에서 2022년 1월 7일에 검색했음.
- 정세원. (2011). *고등학생 영어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정송, 안영은. (2021). 코로나19 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등급 분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2), 53-74.
- 정수경. (2014).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2), 7160-7169.
- 정용희. (2021).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전략 분석 및 학습전략 훈련을 통한 영어 학습 향상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 정지윤. (2021). *콘텐츠 활용형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및 태도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탁희. (1987). *수업의 학습시간 투입의 동기요인과 효과 분석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 정향기. (2020). 코로나19 상황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면적 온라인 수업 실행 및 평가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3(3), 392-412.
- 정혜진. (2006).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듣기 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영상영어교육*, 7(1), 167-190.
- 정흥진. (2018). *자기조절효능감, 메타인지전략, 인지된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조수민. (2016). *가정의보호아동의 낙인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양방향 관계*.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조영아, 최훈. (2012). 영어 읽기 전략이 대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8(1), 327-351.
- 조윤경. (2021). 온라인 환경 수업과 오프라인 환경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몰입과 자기효능감 비교 분석. *문화와 융합*, 43(5), 533-550.
- 조윤희. (2014). *문맥 추론 및 어휘 연상 전략이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조은원. (2021).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대학의 지원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 조일현, 김연희. (2014). 대학생의 학습동기,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과학연구*, 45(2), 77-98.
- 조재춘. (2012). *어휘 판단 과제기반의 영어 어휘 학습시스템 효과성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 조혜선. (2020). 예습 과제 활용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업 사례 연구: 대학교 토익 수업에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3(3), 413-431.
- 주영주, 정영란, 이유경. (2011).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외적동기, 흥미, 과학 과목 성취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6), 876-886.
- 주월량.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학습전략 사용 연구: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9, 537-565.
- 주은솔, 오은주, 방요순. (2021). 보건계열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온라인 수업 성취도 및 만족도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12(2), 1713-1724.
- 주하민, 배지영. (2021).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영어학*, 21, 1105-1127.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4. 29). 방역당국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스트레스 후유증 클 수 있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드와이드웹: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020>. 2022년 1월 7일에 검색했음.
- 지혜영. (2011). *담임교사의 지도력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진경애, 신태수, 김성경, 최영인. (2016). 초등 국어, 수학, 영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메타 인지적 변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227-254.
- 최경숙. (2000). *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 최미양. (2021). 영어 듣기와 읽기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4), 241-249.
- 최윤정, 지난영. (2020). 비대면 영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수업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수업 방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3(4), 233-253.
- 최윤희. (2012).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쓰기 통합형 과업 수행에서 전략 사용과 과업 수행. *영어교과교육*, 11(3), 87-107.
- 최준열, 정충대. (2017).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511-530.
- 한석분. (2009). *영어 능력별 초등학생 집단의 학습전략과 정의적 변인에 관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 한송미. (2018). *영어쓰기 불안감, 영어쓰기 자기효능감이 영어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 한승우, 김보영. (2020). COVID-19 이후 대학 온라인 교육에 관한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문화와 융합*, 42(10), 155-172.
- 한지희, 임희정. (2011). 디지털 영어교재 기반의 블렌디드 러닝이 초등학생의 읽기성취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2(3), 384-405.
- 홍성연, 유연재. (202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공학연구*, 36(6), 957-989.
- 황명환. (2017). 한국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그릿, 자기효능감, 영어능력 사이의 관계 연구. *영어교육연구*, 29(2), 145-164.
- 황명환, 최현규, 신수정, 이희경. (2016).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학습전략, 학업성취도, 학습변인 간의 관계성 연구. *현대영어교육*, 17(3), 189-218.
- 황요한, 김창수. (2021).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인식 조사: 대학생의 만족도와 불안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29(1), 71-9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ialystok, E. (1985). The compatibi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pplied Linguistics*, 6, 255-262.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New York: Longman.
- Bong, M., & Skaalvik, E. M.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 1-

40.

- Chamot, A. U. (1987). The learning strategies of ESL students. In A. L. Wenden &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71-84). NJ: Prentice Hall.
- Chamot, A. U. (2005). Language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Current issues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5, 112-130.
- Cho, H. (2021). Students' perception of emergency online language education COVID-19 pandemic: A case study.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2), 10-3.
- Cohen, A.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Corno, L., & Mandinach, E. B. (1983). The role of cognitive engagement in learning from instru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8, 88-108.
- Dickinson, L. (1987). *Self-instruction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eyer, C., & Oxford, R. L. (1996).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predictors of ESL proficiency among African speakers in South Africa. In Oxford, R. L.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61-7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 Duncan, T. G., & McKeachie, W. J. (2005). The making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Educational Psychologist*, 40(2), 117-128.
- Ehrman, M., & Oxford, R. L. (1989). Effects of sex differences, career choice, and psychological type on adult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Modern Language Journal*, 73, 1-13.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rdner, R., & Macintyre, P. (1993). On the measurement of affective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43(2), 157-194.
- Graham, C. (2006) Blended learning systems: Defini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C. J. Bonk & C. R. Graham (Eds.),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spectives, local designs*. (pp. 3-21). San Francisco, CA: Pfeiffer Publishing.
- Green, J., & Oxford, R. L. (1995). A closer look at learner strategies, L2 proficiency, and gender. *TESOL Quarterly*, 29(2), 261-297.
- Hacker, D. J., & Niederhauser, D. S. (2000). Promoting deep and durable learning in the online classroom.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2000(84), 53-63.
- Ham, S. A. (2002). The self-efficacy model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and EFL reading achievement. *English Teaching*, 57(1), 111-130.
- Hidi, S., & Boscolo, P. (2006). Motivation and writing in C. A. MacArthur, S. Graham, & J. Fitzgerald (Eds.),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pp. 144-157). New York/London: Guilford Press.
- Joo, Y. J., Bong, M., & Choi, H. J. (2000).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ernet self-efficacy in Web-based instruc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8(2), 5-17.
- Kim, Y. (2019). *The inter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nd SES e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Larsen-freeman, D., & Long, M.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London: Longman.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Mayer, R. E. (1988). Learning strategies: An overview. In C.E. Weinstein, E.T. Goetz, & P. A. Alexander (Eds.), (pp. 141-169).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N. Y.: Academic Press, Inc.

- McDonough, S. (1999). Learner strategies. *Language Teaching*, 32, 1-18.
- Nyikos, M., & Oxford, R. L. (1993). A factor analytic study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Interpretations from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and social psycholog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1), 11-22.
- Oettingen, G. (1995).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efficacy. In A. Bandura (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pp. 149-17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borne, J. W., Costello, A. B. & Kellow, J. T. (2008).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J. W. Osborne (Ed.), *Best practices in quantitative methods* (pp. 205-213). Thousand Oaks, CA: Sage Publishing.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Oxford, R. L., & Ehrman, M. (1995). Adults'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an intensive foreign languag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System*, 23(3), 359-386.
- Oxford, R. L., & Nyikos, M. (1989). Variables affecting choice language strategies by university students. *Modern Language Journal*, 73, 291-300.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4), 543-578.
- Pajares, F. (2008). Motivational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in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111-139.
- Phan, H. P. (2009). Amalgamation of future time orientation, epistemological beliefs, achievement goals and study strategies: Empirical evidence establishe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55-173.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Politzer, R. L. (1983). An exploratory study of self-reported language learn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achieve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1), 54-65.
- Puzziferro, M. (2008). Online technologie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predictors of final grade and satisfaction in college-level online courses.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22*(2), 72-89.
- Rosenberg, M. (1978).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Book ,Inc.
- Rubin, J. (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1), 41-51.
- Saito, A. (2020). Strategy use,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ness in adult foreign language learning. *Austral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2), 152-167.
- Schorle, A., & Szabo, A. (2000). *Learner aut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nk, D. H. (1995).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Washington, DC: Hemisphere.
- Schunk, D. H., & Hanson, A. R. (1985). Peer models: Influence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313-322.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itzmann, T., & Ely, K. (2010). Sometimes you need a reminder: The effects of prompting self-regulation on regulatory processes, learning and attri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1), 132-144.
- Skehan, P.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275-298.

- Stern, H. H. (1975). What can we learn from the good language learner.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1(4), 304-318.
- Vandergrift, L. (2002). It was nice to see that our predictions were right: Developing metacognition in L2 listening comprehension.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8(4), 555-576.
- Wang, C., Kim, D. H., Bong, Mim., & Ahn, H. S. (2013). Examining measurement properties of and English self-efficacy scale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 24-34.
- Wang, C., & Pape, S. J. (2007). A probe into three Chinese boys' self-efficacy beliefs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4), 364-377.
- Wenden, A. (1985). Learner strategies. *TESOL Newsletter*, 19, 1-7.
- Wenden, A., & Rubin, J. (Eds.). (1987).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Prentice Hall.
- Yu, Y., & Wang, B. (2009). A study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in the context of EFL curriculum and pedagogy reform in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29(4), 457-468.
- Zarei, A. A. (201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reading self-efficacy, and L2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10(22), 157-181.
- Zimmerman, B. 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nd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13-3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614-628.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

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 59.

부록

팬데믹 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사용하는 영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코로나(COVID-19)상황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여러분의 영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의견은 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종료 시 폐기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솔직하고 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한은지 드림

1. 응답자의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① 30분 이내 ② 약 1시간 ③ 약 2시간 ④ 약 3시간 ⑤ 3시간 이상 ⑥ 하지 않는다.

(3) 요즘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②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공부한다.
- ③ EBS 방송이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혼자서 공부한다.
- ④ 영어 과외를 받는다.
- ⑤ 영어 학원을 다닌다.

(4) 학생의 영어 성적은 몇 점입니까? () 점

(2학년 2학기 시험 성적 기준)

(5) 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영어 학습전략(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 ① 예. (5-1 문항으로) ② 아니오.

(5-1) 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영어 학습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6)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습니까?

- ① 예. (6-1 문항으로) ② 아니오.

*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으로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

예) 나는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영어 읽기자료(교과서, 보충 프린트, 모의고사 독해지문)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1) 코로나(COVID-19) 상황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2. 영어 자기효능감 설문지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영어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해진 시간 안에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평가해주세요. 본인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믿는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1.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2.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계획한 만큼 하기 전에는 그만 두지 않는다.					
3. 나는 영어지문을 읽을 때 잘 모르는 어휘가 발견되면 그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다.					
4. 나는 영어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					
5. 나는 영어 독해를 좋아한다.					
6. 나는 영어 말하기를 좋아한다.					
7. 나는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8.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다.					
9. 나는 영어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10.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온라인 환경의 새로운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12.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영어 읽기자료(교과서, 보충 프린트, 모의고사 독해지문)를 이해할 수 있다.					
13. 나는 영어 쓰기를 좋아한다.					

14. 나는 영어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 어려우면 더 이상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15. 나는 영어로 된 메시지나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16. 나는 영어 듣기를 잘 할 수 있다. (예: 자막없이 영어로 된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17. 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영어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다. (예: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19. 온라인 환경 영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기능(채팅, 화면공유, 마이크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20. 나는 영어 듣기를 좋아한다.					
21. 나는 영어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잘 할 자신이 있다.					
22. 온라인 환경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긴장되고 불안하다.					
23. 온라인 환경의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 공부를 더 잘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4. 나는 영어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25. 온라인 환경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된다.					
26. 나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없고 딴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3. 영어 학습전략 설문지

여러분들이 영어학습을 할 때 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혹은 전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1. 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 그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머릿 속으로 그려본다.					
2. 나는 영어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한다.					
3. 나는 적절한 영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뜻이 동일한 다른 단어나 문장을 대신 사용한다.					
4.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5.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먼저 한 번 대충 전체 글을 훑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자세히 읽는다.					
6. 나는 다른 학생들과 영어를 사용해보면서 연습한다.					
7. 온라인 영어 수업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 때 그 때 선생님께 질문한다.					
8.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어 학습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9. 영어로 듣거나 읽은 정보의 내용을 요약해본다.					
10. 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행동(몸짓, 손짓 등)으로 옮겨 보면서 단어를 암기한다.					
11. 나는 생소한 영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추측해본다.					
12.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학습활동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한다.					
13.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울 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려고 애쓴다.					
14. 온라인 영어 수업에 필요한 공부시간을 스스로 잘 활용하였다.					
15. 나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6. 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연상 관계를 생각해본다.				
17. 나는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 할 때 주어진 숙제를 제시 간에 하도록 노력한다.				
18. 나는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19. 영어로 말할 때 실수 하는 것이 겁이 나더라도 영어로 말해보려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20. 영어를 학습할 때의 나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본다.				
21. 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하려고 애쓴다.				
22. 나는 영어를 공부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는지 지각한다.				
23. 온라인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24. 온라인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한다.				
25. 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암기하기 위해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본다.				
26. 영어를 공부할 때, 수업시간에 쓴 노트를 검토하고 중요한 개념들의 개요를 만든다.				
27. 나는 가능한 한 영어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28.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하루도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다.				
29. 나는 영어로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30. 나는 나의 영어 능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31. 나는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제스처로 표현한다.				
32.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자신을 칭찬하거나 기분을 즐겁게 한다.				
33.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을 확인하려고 한다.				
34. 학교 영어 수업을 자주 복습해본다.				

35. 나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					
36. 영어 수업 시작 전 수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					